

본 인쇄물은 2024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4 ANNUALLY 제40호

속초문화

Sokcho Culture Journal



©박동국



속초문화원

www.sokcho-culture.com

갯배와 철삭*

내가 너에게 묶인 건지
네가 나에게 묶인 건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끌고
네가 나를 끌고
해 저물도록 개를 건넌다

가끔
먼바다로의 일탈을 꿈꾸지만
바람길 열어줄 뜻이 없어
늘어진 철삭 팽팽히 당기는
청호동 갯배

* 철삭: 쇠로 만든 밧줄



정 명 숙

춘천교육대학교 졸업
2006년 《문학마을》 신인상 수상
현. 강원문인협회 이사,
설악문우회<갈매> 동인

시집

『섬이 바다에 머무는 것은』,
『그 많은 인연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e-mail
sook7396@hanmail.net



소초문화

2024 · 제40호

Sokcho-culture Journal



CONTENTS

002 권두시 갯배 - 정명숙

006 발간사 - 김계남(속초문화원장)

008 지상갤러리

茶熟香清有 客到門可喜 - 이덕우

한용운님의 '꿈과 근심' - 권정아

꽃장 - 이진향

동명항에서 바라본 설악대교 야경 - 강영진

동명항 해녀 - 김용환

청초호와 요트 - 이선재

014 표지작품 아바이마을의 갯배 202438 - 박동국

015 속초문화원 365

2024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2024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사업

2024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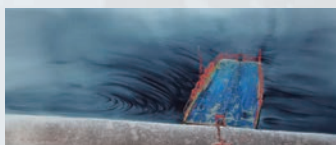
문화교육강좌 운영사업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위탁관리 및 속초도문농요 보존전승

속초도문농요 공개행사

속초돈돌라리 보급, 보존, 전승 사업



아바이마을의 갯배 202438

표지작품 박 동 국

속초문화

제자 해풍 김광희





강원민속 예술축제
설악산 소나무 당제
실향민문화축제 부스운영
설악무산문화축전
제59회 설악문화제 설악산과 영랑호·청초호 추억의 사진전 참가
『속초시지 발간사업』
향토사안내서 발간사업
2024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038 2024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속초를 말하다

- 040 新, 『속초시지(東草市誌)』 발간 - 한정규
- 048 사람 냄새 가득한 마을의 기록을 위해 - 2024 향토사안내서 시민기록단
- 052 •돈 벌어 일만 원 이상을 내 몸에 투자해 본 역사가 없어요 - 박 경 훈(72세)
- 064 •남편이 인정한대요, 내가 일한 공로를요 - 안 만 근(81세)
- 073 속초 지역 현대사의 재조명과 기록의 중요성 - 김귀옥 한성대 교수

099 지상갤러리

중앙부두길 51 - 예담 이희숙

청학동 골목 - 김은경

속초 대표항 - 엄옥경

속초항 - 인정 이희숙

(우)24821 속초시 번영로 155
TEL.(033) 632-1231
FAX.(033) 632-1241
E-mail. sc2439@kccf.or.kr
펴낸곳 : 속초문화원
발행인 : 김 계 남
편집인 : 류 은 숙
진 행 : 김덕영, 김명희
이두범, 김지영
발행일 : 2024. 12. 31.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속초 문화유산의 주춧돌, 속초문화원과 「속초문화」

어느덧 2024년이 지나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속초문화 제 40호」 발간을 준비하면서 속초문화원이 걸어온 2024년을 되돌아봅니다.

속초문화원이 대외적으로 시민들과 더 많이 만나는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올해 정월대보름에는 민속놀이 한마당으로 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과 속초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후 설악무산문화축전, 실향민축제와 설악문화제에서도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들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개최한 「문화강좌」 수료·전시·발표회 때 확인했듯이 속초문화원 회원분들과 수강생분들이 자신의 문화적 성장을 무대와 전시실에서 자랑스럽게 선보였으며, 연간 사업인 「향토사안내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출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청 공모 미래무형유산-속초돈돌라리」는 올해 2024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되며 마지막 사업까지 알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강원민속예술제에도 속초돈돌라리가 출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15개 시군들의 작품들과 실력을 겨루는 뜻깊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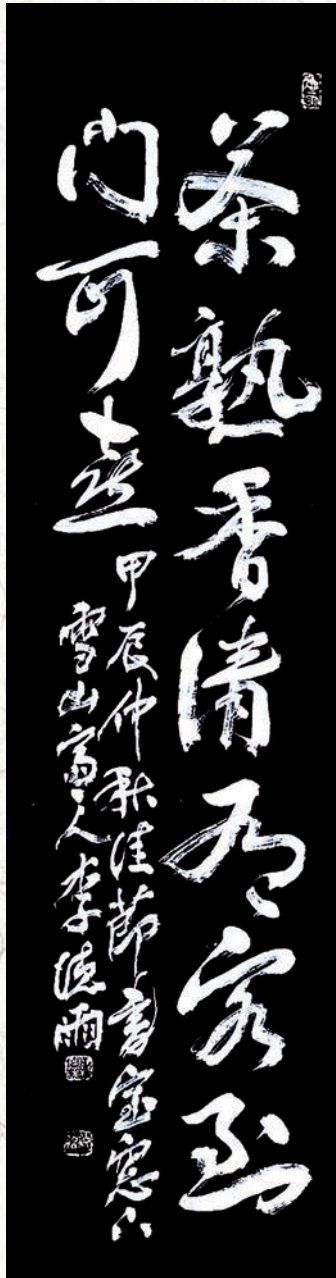
또한 2022년부터 진행되어온 「속초시 승격 60주년, 속초시지 편찬사업」 역시 올해 새롭게 구성된 편집위원회와 함께 잘 마무리 되어 연말에 결과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가능하게 한 것은 속초문화원 임원진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속초문화원 회원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응원과 관심에 벗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속초문화원은 속초 지역의 문화유산의 주춧돌로서, 또 「속초문화」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지로서 더욱 발전하는 매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속초문화원 원장 김 계 남





茶熟香清有 客到門可喜
차를 끓이니 그 향기가 청아하며
손님이 찾아오니 온 집안이 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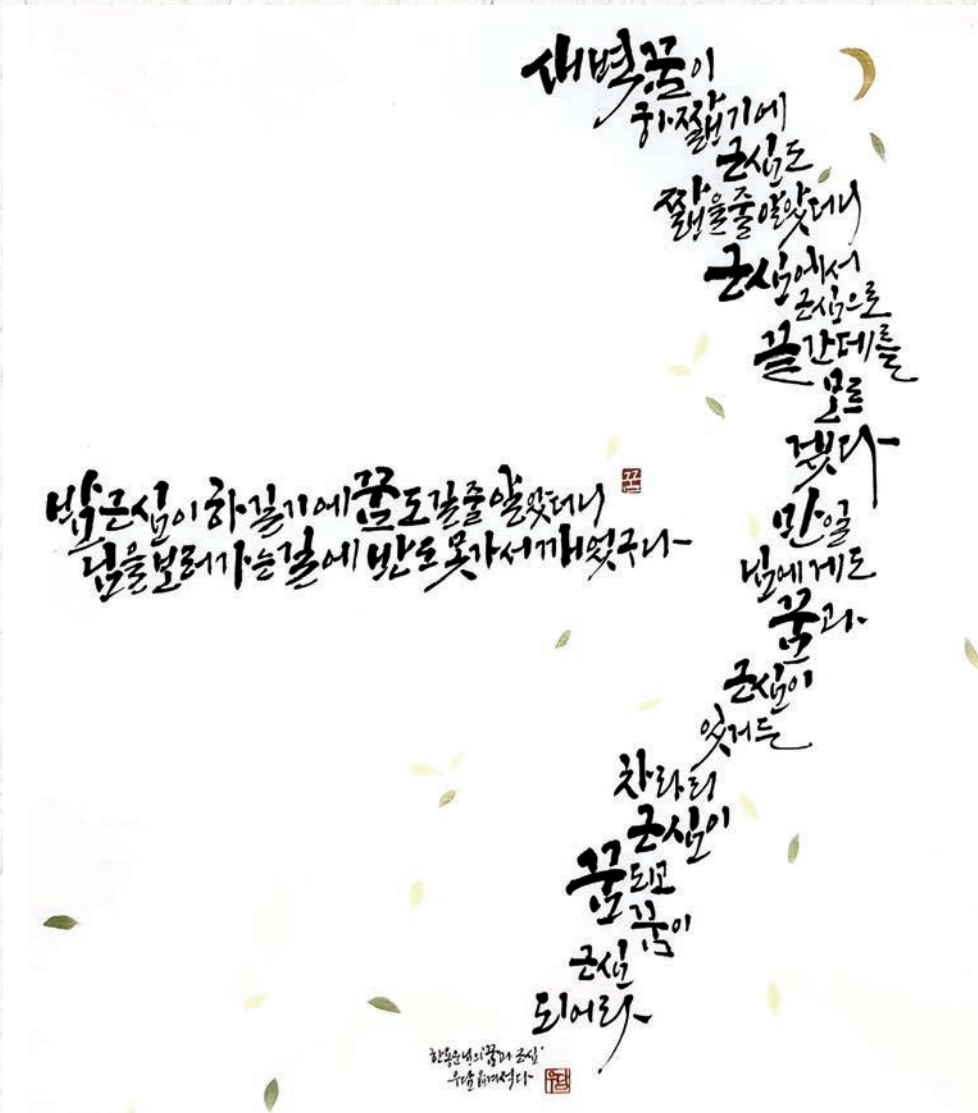
• 135×35cm • 화선지에 먹 2024



이덕우

•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해정서예연구원장

속초시 중앙로74, 3층 해정서예연구원
M. 010-5376-1314 E. ldw1314@daum.net



한용운님의 '꿈과 근심' • 53x45.5cm • 화선지에 먹 (2024)



권 정 아

- 2020 국립산악박물관 기획전 束雪-속초의 설악 출품 • 2023 피노디아 개관 초대전 출품
 - 2023 삼척시 찾아가는 문화활동 서예퍼포먼스 2회 • 202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서예 퍼포먼스
 - 현) 속초문화원, 속초교육문화관, 속초/고성/양양 교육도서관 출강
 - 경기대학교 Fine Art 서예(문자예술학)전공 졸업 • 강원서예과총연합회 부회장
 - 한빛동인 회원 • 한국미술협회 정회원
 - e-mail remote_ja@naver.com • sns www.instagram.com/woodam_calligraphy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선사로4길 31 1층 우담글씨연구소



꽃 장 • 빈티지 기법, 한지그림 기법 (2024)



이진향

- 계명대학교 의생활학과 졸업
- 한지공예 개인전 2회 (21년, 22년) • 제5회 한지그림연구회 회원전 (23년)
- 신사임당미술대전 최우수상(2019년) • 대한민국한지대전 특선(2019년)
- 신사임당 미술대전 (최우수상, 입선) • 대한민국한지대전 (특선)
- 한국종이공예공모대전 (특선) • 국제전통예술대전 (특선)
- 현, 속초교육문화관, 속초문화원, 속초평생교육문화센터, 양양평생학습관 한지공예 강사
(사)한국미협 속초지부 회원



동명항에서 바라본 설악대교 야경

강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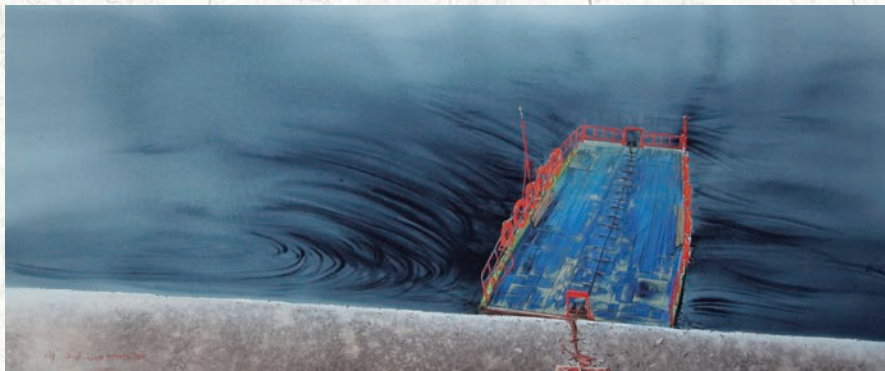
동명항 해녀

김 용 환



청초호와 요트

이 선 재



아바이마을의 갯배 202438

•55×130cm

•Archés에 Watercolor, 2024

산이 그러하듯 바다도 늘 같은 빛을 입지 않는다. 속초에서만 볼 수 있는 갯배가 포착되고, 항구 연작은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포착하는 그만의 독특한 안목이 돋보인다. 그의 그림에는 주름진 어부의 얼굴이나 끊임없이 부딪치는 파도가 강조되지 않고 흔적도 없다. 뱃고동 소리는 마음속에 들어있다. 작가는 속초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갯배 작품을 통해서 실향의 아픔을 출렁이는 뱃머리에 실어 여러 번 북으로 내보낸 적이 있다. 도시문명의 한 가운데 위치하면서 아직도 청호동 아바이마을에는 줄 달린 갯배가 운행된다. 작가의 자연은 어느 것 하나도 삶을 떠나 있는 관념속의 그림이 아닌 것이다.

- 장석용(한국예술평론가협회의회장)평론글 중에서



박동국

- 개인展 25회(예술의 전당 외)
- 세계수채화대展(세종문화회관) 등 국내/외 단체/초대展 400여회
-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회 다수의 심사/운영위원 역임
-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주관 2023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심사위원선정-특별예술가상 수상)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2023)/강원미술상 본상(2015)/속초시문화상(2014) 수상
- 화집발간(2021, 발길 따라 잉태한 풍경)(2024, 발길 멈추고 보다)
- 현재, (사)한국미협 이사, 강원미술대전 초대작가, (사)한구미협 속초지부 고문
- 작품소장처: 소노캄텔피노, 소노펠리체델피노, 롯데리조트, 백공미술관, 진부령미술관, 일본 돗토리현 청사, 러시아연해주립미술관, 강원진로교육원,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원주시청, 저스트인타임, 갤러리 루나, 갤러리 이안재, 갤러리 마키아올리 외 개인소장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사진용촌1길37-2

M.010-8921-0101 E-mail. pdongugi@hanmail.net

속초문화원 365



2024 정월대보름 한마당

2024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사업

2024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사업

문화교육강좌 운영사업

미래무형유산발굴육성사업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위탁관리 및 속초도

문농요 보존전승

속초도문농요 공개행사

속초돈돌라리 보급, 보존 전승사업

강원민속예술축제

소나무당제

실향민문화축제

설악무선문화축전

설악문화제

속초시지 발간사업

향토사인내서

2024속초문화원 발간책자

2024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2024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가 2월 24일 오후 1시부터 속초해수욕장 정문 및 해변에서 지역민들의 전통축제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원이 주관하는 본 행사는 전통민속 재현 및 전통문화 체험행사, 민속경연대회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꾸며졌다.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체험과 지역민속 공연의 재미와 우수성을 알렸다.

■ 2024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 일 시 : 2024년 2월 24일 13:00
- 장 소 : 속초해수욕장 정문 및 해변
- 향유자 : 동별 행사 참가자 및 행사 향유자 약 15,200여명
- 내 용 :
 - 전통민속 재현
 - 달집태우기, 속초돈돌리리공연, 소망기원제사
 - 전통문화 체험행사
 - 제기 만들기, 연 만들기, 떡메치기, 소망등 만들기, 가훈써주기, 부럼 깨기, 오곡약밥 나눠주기, 소원지 쓰기, 귀밝이술 나눔
 - 민속경연대회
 - 속초 고성 양양여성기업인 협회 / 제기차기 (1위 동명동, 2위 노학동, 3위 금호동)
 -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 고무신던지기 (1위 노학동, 2위 금호동, 3위 교동)
 - 금강새마을금고 / 투호 (1위 교동, 2위 영랑동, 3위 노학동)
 - 속초신용협동조합 / 윷놀이 (1위 교동, 2위 금호동, 3위 영랑동)
 - 라이온스클럽 / 팽이치기 (1위 금호동, 2위 교동, 3위 동명동)
 - 로타리클럽 / 비석치기 (1위 영랑동, 2위 조양동, 3위 금호동)
 - 속초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 딱지치기 (1위 영랑동, 2위 동명동, 3위 금호동)





2024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사업

시민의 문화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보존 및 전승, 향토문화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사업입니다.

■ 다문화소통프로그램 ‘전통문화놀이 체험프로그램’

- 교육 기간 : 2024.4.~6.
- 내용 : 8회, (샌드아트7회, 체험1회)





■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

- 일시 : 2024.9.10.(화) 11:00
- 인원 : 40명
- 장소 : 홍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내용 : 사물놀이반 '두두리' 참가

■ 2024 문화강좌 수료 전시 발표회

- 일시 : 2024.11.20.(수) 15:00
- 인원 : 400여명
-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내용
 - 전시회(9개 강좌)
서예, 한지공예, 스케치로 만나는 속초, 드로잉, 이야기로만나는속초, 천연염색, 감성글씨, 전통매듭과보자기, 명심보감
 - 문화강좌 발표회(13개 강좌)
우쿨렐레, 민요, 색소폰, 사물, 흥사랑노래, 웰빙라틴댄스, 고고장구&퓨전난타, 라인댄스, 춤추는시민 신나는속초, 돈돌라리, 한국무용, 쥘레, 통소
 - 문화유공자 포상 : 속초시장 표창(문화강좌 수강생 이상순)
속초시의회 의장 표창(예술강사 엄채란)
한국문화원연합회 표창(예술강사 권정아)
수강생 표창 22명



■ 2024 강원문화대축전 참가

- 일시 : 2024.11.28.(목) 11:00
- 인원 : 40명
- 장소 : 인제실내체육관
- 내용 : '우쿨렐레' 강좌 공연

문화유공자 포상 : 한국문화원연합회 표창(문화강좌 수강생 이희숙)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예술강사 이은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표창(예술강사 이진향)



속초문화원 향토문화강좌는 지역의 전통있는 평생교육 강좌로 올해 32기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강좌로는‘서예, 흥사랑노래교실, 민요, 드로잉’ 4개 강좌가 11월까지 진행되었고, 11월 20일 ~ 22일 3일간 향토문화강좌 전시회를 가졌고, 11월 20일 수료식 및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2024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사업

■ 문화학교 운영

- 교육 기간 : 2024.3.~12.
- 내용

(단위:명)

강좌명	수업내용	강사명	수업장소	수업횟수	향유인원	비고
서예	한문서예	이덕우	문화사랑방	60	447	
흥사랑노래	가요 및 트로트 등	최봉하	문화사랑방	60	1,154	
민요	경기민요 등	엄채란	문화사랑방	60	372	
드로잉	드로잉초급	정봉재	문화사랑방	60	523	
			합계	240	2,496	



문화교육강좌 운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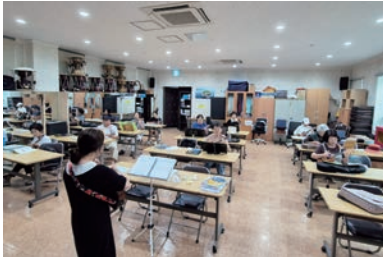
지역민들의 문화적 소양 향상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해 문화교육강좌‘라인댄스, 한지공예, 스케치로 만나는속초, 줌베, 고고장구&퓨전난타, 사물, 웰빙라틴댄스, 춤추는시민 신나는속초, 돈돌라리, 우쿨렐레, 한국무용, 이야기로만나는속초, 천연염색, 색소폰, 감성글씨, 통소, 전통매듭과보자기, 명심보감’ 18개 강좌를 운영하였다.

■ 문화교육강좌 운영

교육 기간 : 2024.3.~12.

(단위 : 명)

강좌명	수업내용	강사명	수업장소	수업횟수	향유인원	비고
라인댄스	라인댄스 기초	이태림	문화사랑방	60	614	
한지공예	한지공예	이진향	문화사랑방	30	157	
스케치로만나는속초	생활예술미술수업	정봉재	문화사랑방, 속초도문농요전수관	60	702	
줌베	줌베 기초	이은영	속초도문농요전수관	60	419	
고고장구&퓨전난타	고고장구, 난타	한명옥	두두리연구원	60	441	
사물	사물악기(기초)	한명옥	두두리연구원	60	391	
웰빙라틴댄스	라틴댄스 기초	최덕성	속초시댄스스포츠연구원	60	664	
춤추는시민신나는속초	댄스스포츠	이명우	속초시댄스스포츠연구원	60	753	
돈돌라리	속초돈돌라리(무용)	김민희	속초예술종합교육원	60	789	
우쿨렐레	우쿨렐레 기초	이은미	문화사랑방	60	371	
한국무용	전통무용	김현숙	속초예술종합교육원	60	491	
이야기로만나는속초	속초학	양용석	문화사랑방	30	273	
천연염색	천연염색	이향옥	크로바패션	60	211	
색소폰	색소폰	이태환	문화사랑방, 이태환색소폰아카데미	60	661	
감성글씨	캘리라피	권정아	문화사랑방	60	416	
통소	통소	정병인	속초예술종합교육원	30	179	
전통매듭과보자기	규방공예와전통매듭	박진선	하늘공방	30	188	
명심보감	명심보감	이덕우	해정서예연구원	60	475	
합 계				960	8,195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2022년부터 시작된 국가유산청 미래무형유산 지원사업인 『속초돈돌라리』는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돈돌라리의 학술성 및 역사성 조사·연구 및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강습,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공연 등이 중점 사업으로 이루어져 왔다.

■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2월~12월
- 내 용 : - 미래무형유산 결과보고 학술 세미나 1회
 - 속초돈돌라리 3년차결과보고서 200부
 - 상설공연 , 특별공연 “회향”진행
- 체험활동 및 홍보(기념품)
- 전승자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
- 전승확산을 위한 어르신 교육
- 전승확산을 위한 청소년 교육

(단위 : 명)

강좌명	수업내용	강사명	수업장소	수업 횟수	향유 인원	비고
미래무형유산 -교육운영체계화 (4~6월)	마당극	김민희	속초예술종합교육원	30	402	
	피리	김기복, 김민희	속초예술종합교육원	30	194	
	탈춤	정병인	속초예술종합교육원	30	159	
미래무형유산 -청소년교육체계화 (3~12월)	소고+탈춤+피리	정병인, 김기복	청호초등학교	30	883	
	소고+탈춤	정병인	청봉초등학교	32	1,327	
미래무형유산 -어르신교육체계화 (3~12월)	무용+음악	김민희	속초시노인복지관	30	411	
합계				182	3,376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위탁관리 및 속초도문농요 보존전승

속초문화원은 속초도문농요전수관을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 5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다. 도문농요의 보존 육성 및 전수교육, 공연 등 체계적인 전승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2024년 생생문화재 및 각종 워크숍, 대관 등 지역의 문화활동의 장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속초도문농요의 지속적인 재현과 보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속초시 상도문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속초도문농요보존회는 연간 9회 총연습과 매달 실시하는 전승교육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 2024 속초도문농요 연습 활동

- 기 간 : 2024년 1월 ~ 12월
- 연 습 : 소리연습 7회, 악기연습 5회, 총연습 9회
- 장 소 : 속초도문농요전수관
- 참가자 : 속초도문농요보존회원 43명



속초도문농요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연간 2회 공개행사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24년 1차 공개행사는 시립박물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공연하였으며 2차 공개행사에서는 상도문 마을 논에서 서낭굿에서부터 모찌고 심기소리를 제창하며 보유자와 회원들이 직접 모심기 실현을 통해 정겨운 농촌의 옛 모습을 재현하여 관람객들하게 볼거리와 학습효과를 고취시켰다.

속초도문농요 공개행사

■ 2024 속초도문농요 공연

공연 일시	내 용	장 소	관람객
2024. 5. 04. 11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1차)	시립박물관 야외 특설무대	210명
2024. 5. 13. 10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2차)	상도문 마을 논	120명



속초돈돌라리 보급, 보존, 전승 사업

속초돈돌라리의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에 기대를 하며, 보존회 단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수준 높은 예술 활동을 구원하고, 상호친목을 도모하여 속초돈돌라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 시킨다.

■ 속초돈돌라리 보급, 보존, 전승 사업

- 기 간 : 2024년 4월~12월
- 참가자 : 속초돈돌라리 보존회 회원 50명
- 내 용 : 속초돈돌라리 보존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습 및 특별강습

(단위: 명)

강좌명	수업내용	강사명	수업장소	수업횟수	향유인원	비고
속초돈돌라리 - 타악 (4~12월)	타악	김기복, 김민희	속초예술종합교육원	16	211	
속초돈돌라리 - 전과정 연희 (4~12월)	전과정연희	김민희	속초예술종합교육원	9	272	
			합계	25	483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 문화를 발굴·연구하여 재현하고 시민들에게 지역 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하고, 향토문화의 맥을 잇는 가교역할과 공연을 통한 전통문화의 지속적 전승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의 전통 민속의 새로운 공연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기여하였다.

강원민속 예술축제

■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 기 간 : 2024년 9월 26일(목) ~ 27일(금)
- 참가자 : 속초돈돌리 보존회 회원 및 악사 50여명 참가
- 내 용 : 강원민속예술축제 연습 6회
대회참여 공연 1회
공연콘텐츠 제작(공연시간 20분)
강원도 행사 참여로 속초돈돌리 홍보



설악산 소나무 당제

설악산 소나무는 신령스럽고 명산으로 알려진 설악산 입구를 지키는 소나무로 설악산에 입산하고자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옛날부터 설악동 소나무 앞에서 무사 안녕을 기원하였다. 당제의 원형 재현을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시민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자연문화재를 매개체로 하여 상징성 및 정체성 부여.

■ 설악산 소나무 당제

- 사업기간 : 2024년 4월 11일 (목)(음력 3월3일)
- 장 소 : 설악동 소나무 앞
- 내 용 : 전통문화로 속초시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
 - 제물 진설 및 제례위원 준비
 - 행사 진행 제례위원과 축문을 읽는 제례위원 4인 구성
 - 소원지 접수
 - 제례를 올리는 헌관 3인 구성
 - 당일 아침 제례 행사 진행



이북의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의 애환을 위로하기 위한 주요 행사인 실향민문화축제에 참석하는 속초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향토문화와 생활사를 알리고자 하였다.

실향민문화축제 부스운영

■ 실향민문화축제 부스운영 (속초제대로알고사랑하기)

- 기 간 : 2024년 6월 14일 ~ 16일
- 내 용 : - 속초문화퀴즈 퍼즐맞추기 이벤트
- 속초 옛 사진 전시전
- 속초 관련 서적 배포



설악무산 문화축전

(재)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권영민)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가 후원하는 ‘2024 설악무산문화축전’은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신흥사·백담사·낙산사) 중심으로 활동한 무산 스님의 화합·상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로 문화·예술을 후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속초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

■ 설악무산문화축전

- 2024년 6월 7일 ~ 2024년 6월 8일
- 장 소 : 속초 엑스포공원
- 사업규모 : 문화체험 10개 부스 및 속초 전통문화공연
- 내 용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청소년 경연대회인 설악청소년문화축전과 30여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음식 축제인 ‘속초에서 맛나’, 50여 개 무료 문화체험행사, 버스킹 등 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이외에도 3일간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제공되었다.





제59회 설악문화제 설악산과 영랑호· 청초호 추억의 사진 전 참가

설악산과 영랑호·청초호 추억의 사진을 공모 및 전시하여, 다양한 연령대 관람객이 즐길만한 설악문화제 체험부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제59회 설악문화제 설악산과 영랑호·청초호 추억의 사진전 참가

- 기 간 : 2024년 10월 4일(금) ~ 6일(일)
- 장 소 : 속초 엑스포공원
- 내 용 : 장릉사진전 전시

설악산과 영랑호·청초호 추억의 사진전 전시

설악산 체험 즉석 사진 인화 서비스 이벤트



『속초시지 발간사업』은 2006년 束草市史 발간 이후 개정판 발간이 없어 현재까지의 속초시 전반에 대한 시지(市誌) 출간이 요구되어, 2023년 속초시 승격 60년을 맞아 속초시 전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시지(市誌) 제작·출간이 필요하다 사료 속초문화원 주최로 발간사업을 진행중이다.

『속초시지 발간사업』

■ 『속초시지 발간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5월 ~ 2024년 12월
- 장 소 : 속초문화원
- 사업규모 : - 600질(7권/1질, 총4,500쪽/1질)
 - 본권 4권(1편·2편·3편·4편 750쪽/권당)
 - 별권 3권(500쪽/권당)
- 내 용 : - 본권(3권) : 속초의 역사, 자연환경, 인문환경, 정치, 행정, 사법, 산업, 경제, 관광, 축제, 사회, 복지, 교육, 종교, 성씨, 인물, 민속, 지명, 언어, 문학, 예술, 문화유산
 - 별권(3권) : 사료로 읽는 속초, 구술로 듣는 속초, 사진으로 보는 속초



향토사안내서 발간사업

『향토사안내서 발간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 등 콘텐츠를 선정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향토사안내서 발간하여 향토사에 관심 있는 지역민과 관내·외 기관 및 단체에 보급하여 지역향토문화 자습서 및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독자들의 지역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 『향토사안내서 발간사업』

- 기 간 : 2024년 4월 ~ 2024년 12월
- 사업규모 : 참여자 - 구술 전문가, 발간회의, 책자 발간 100부,
발간된 책자 속초문화원 홈페이지에 E-Book으로 제작
- 내 용 : - 향토사안내서 발간 기획회의
참 가 자 : 구술 전문가 공개 모집
회의내용 : 향토사안내서 발간을 위해 주제선정, 원고작성자 선정,
발간 진행과정 공유 등 전문가 회의 진행
- 향토사안내서 발굴 및 기록
속초지명을 재조명하여 잊혀질 수 있는 속초의 지역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향토사안내서 발간 및 E-BOOK제작
책자발간 : 원고작성 및 발간
발간 책자 속초문화원 홈페이지에 E-BOOK으로 제작



2024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 『향토사안내서 오징어할복장과 아마이』

- 발행일 : 2024년 12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편집인 : 류은숙
- 구술인터뷰 및 글 : 최문경, 김현미
- 출판 : 씨엔씨디자인
- ISBN : 979-11-94405-04-7

2024 향토사안내서는 지난 3년 동안 속초문화원은 ‘속초향토사안내서’로 초등 교사를 위한 속초향토사안내서, 중등 교사를 위한 속초향토사안내서, 속초시민들을 위한 향토사안내서 등을 발간하였다.



■ 속초문화 40호 발간

- 발행일 : 2024년 12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편집인 : 류은숙
- 출판 : 씨엔씨디자인
- ISSN : 2713-5802

속초문화 40호 발간을 통해 한해 문화활동내용을 정리하고, 콘텐츠 확보 및 전달 목적으로 발간하였다. 권두시, 속초문화 365, 인물산책 등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 이은미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대축전 기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상
- 이진향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대축전 기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
- 이희숙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대축전 기념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 이상순 2024년 속초문화원 문화강좌수료전시발표회 기념 속초시장상
- 엄채란 2024년 속초문화원 문화강좌수료전시발표회 기념 속초시의장상
- 권정아 2024년 속초문화원 문화강좌수료전시발표회 기념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속초문화원 문화강좌 수료 전시 발표회 기념 문화유공자 포상



강원문화대축전 기념 문화유공자 포상

- 최재도 (속초문화원 속초학연구소 소장)
제34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학연구발표대회 특별상 수상





속초를 말하다

- 新, 『속초시지(束草市誌)』 발간
한정규

- 사람 냄새 가득한 마을의 기록을 위해
-2024 향토사안내서 시민기록단

- 속초 지역 현대사의 재조명과 기록의 중요성
김귀옥(한성대 교수)



新, 『속초시지(東草市誌)』 발간

본권 4권에 별권 3권, 모두 7권에
4,430여 페이지의 방대한 문화자료 수록

한 정 규 (속초문화원 부설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이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고 속초시의 발전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한 ‘속초시지(東草市誌)’ 편찬이 드디어 3년여 각고의 노력 끝에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이 현대적인 모습과 내용으로 그 빛을 발하게 됐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지리지 및 읍·군지 등 그외에 여러 사료집을 집필해 우리 민족의 기록문화 전통성을 남겨왔다. 이를 통해 당 시대의 지리와 인문환경, 생활양식 등을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집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2024년 ‘속초시지’ 발간은 속초시의 자연, 지리, 역사, 문화, 정치, 행정, 산업, 경제 등을 집대성하는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소중한 사료적 기록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1년 속초문화원은 시승격 60주년이 되는 해가 2023년이 다가옴에 따라 속초의 발전상을 담은 기록물을 남기고자 속초시에 ‘속초시지편찬’사업 제안을 하면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앞서 발간되었던 ‘속초시지(1991)’와 ‘속초시사(2006)’가 있었지만 이 자료집은 2005년도까지의 자료를 끝으로 멈춰 있었고, 그 이후에 나타난 역사, 환경, 산업, 경제 등을 수록한 기록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에 추진할 수 있었다.

2022년 5월 ‘속초시지’ 발간을 위해 속초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고, 속초



문화원 주관으로 김계남 속초문화원장과 최재도 속초학연구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13명의 속초시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속초시지’ 편찬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속초시지’ 편찬 작업을 위해 최근에 발간된 타 도시 ‘시지(市誌)와 군지(郡誌)’ 그리고 ‘시사(市史)’를 참조하고, 여러 자문위원과 편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속초시지’ 편찬을 전문용역기관이나 업체에 의뢰 및 위탁하여 발간하기보다는 지역을 잘 알고 이해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와 향토연구자, 교수, 속초학연구위원을 비롯 44명의 집필위원들이 참여하여 집필을 완료할 수 있었다. 지역에 산재된 방대한 자료의 사실적 조사와 정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면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기초자료 조사, 2023년 8월까지 원고 집필 완료, 9월부터 11월까지 원고 공람과 윤문단계, 교정·교열을 거치고, 2023년 12월까지 감수위원의 감수를 모두 마쳤다. 시승격 60주년의 해인 2023년에 발간계획이었으나 속초시의 예산과 일정계획 변경에 의해 한해 미루어 출판하게 되

었다. 2024년 3월 인쇄 및 출판을 위해 7명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집방향과 디자인 그리고 책자의 형태 및 재질 등을 여러 차례 논의하며 인쇄출판업체와 업무협의를 마무리하고 편집가본을 인쇄, 집필진의 확인과 수정을 한 이후에 2024년 12월 인쇄 및 출판을 수행, 속초시의 문화를 집대성한 ‘속초시지(東草市誌)’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번 속초시지 발간은 지난 1991년 ‘속초시지’ 발간과 2006년 ‘속초시사’가 발간된지 18년 만이다. 1991년 발간된 ‘속초시지’는 한 권으로 속초시의 발자취를 담은 시지(市誌)로, 2006년 발간된 ‘속초시사’는 자연환경, 역사, 정치행정, 교육, 산업경제, 관광·수산, 문화예술, 생활관습, 자료편 등 2권으로 구성된 역사서로 발간된 바 있다.

새롭게 발간된 2024 ‘속초시지’는 이전의 ‘속초시지’와 ‘속초시사’에 담기지 못했거나 누락되어 있던 내용을 포함하여 이후 새로이 등장한 선사시대부터 2023년 6월까지 속초시의 역사를 보다 폭 넓게 담아 본권 4권에 별권 3권 모두 7권에 4,430여 페이지의 방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1권에 자연·인문 환경과 역사, 2권에 국가유산과 민속과 전통, 3권에 지명, 성씨·인물, 정치·행정·의회·사법, 산업·경제·사회간접자본, 4권에 관광·축제, 문화·예술·체육·언론·출판, 종교·교육, 보건복지·사회단체 편을 구성하고, 별권 1권에 사료로 읽는 속초, 별권 2권에 구술로 듣는 속초, 별권 3권에 사진으로 보는 속초를 담았다.



‘속초시지’는 어렵지 않게 시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이한 문체를 사용하여 구성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진자료와 화보를 다량 수록하고 특히, 속초만의 독특한 문화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구술로 듣는 속초편을 마련하여 후세에게 지역의 모습을 보다 쉽게 전하고자 노력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자료집으로서 가치를 높이게 편성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속초시지(東草市誌)’ 발간은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적 변천사를 집대성한 중요한 기록물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역사적 기록의 보존이다. 시지는 지역의 역사적 사건, 인물, 사회적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 후대 연구자들, 그리고 외부 방문자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도시가 100년을 맞이했을 때, 도시의 변천사를 정리한 시지는 도시가 겪어온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문서화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기억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는 속초만의 자부심의 결과물이다.

둘째는 지역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로 시지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역사적 유산과 문화적 가치를 되새길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 역사적 사건, 전통 등을 기록함으로써 주민들이 속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셋째는 학술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종합자료집으로 역할을 한다. 지역의 역사, 사회, 경제 등을 다룬 시지는 지역에 관한 자료를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역 특유의 문화와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지역 개발, 정책 수립, 사회적 연구 등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넷째는 미래 지향적인 지역 발전 전략수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돌아보는 기회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교훈 삼아 보다 효율적인 발전 전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는 문화유산의 계승과 홍보에 기여한다. 시지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이를 후세에 계승하는 중요한 도구로서의 기능 역할과 지역 외부로 문화와 유산을 홍보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속초시지’ 발간으로 지역의 향토사학자나 연구자, 속초학연구위원 및 각계 전문가, 그리고 관계기관에서는 속초의 과거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표면적인 역사적 사실에 국한되지 않고, 속초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의 다양한 변천사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역사, 민속, 문화, 자연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속초의 역사와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는 고도의 방향성도 그려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자료 수집과 보존을 위해 지역내의 향토사학자 및 연구자, 속초학연구위원들은 속초의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꾸준히 밝혀내며 노력해 왔었다. 고문서, 구술 기록, 사진, 영상, 신문 자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여 남기며, 이를 통해 속초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하고, 후속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토사학자나 연구자들은 속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단일한 관점이나 특정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측

면에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역사적 사건이나 변화를 분석,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사회적 논란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2024년 이후 또다시 ‘속초시지’ 재발간 사업이 언제 추진될지 모르지만 향후 속초문화원은 시지작업을 위해 시민들이 역사 기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의 경험이나 기억을 모은 구술 역사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속초시지’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하여 보다 다채롭고 실질적인 기록을 남기는 데 기여해야만 한다.

또한, ‘속초시지’가 발간되는 시점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여, 해당 시기의 역사적 의미를 잘 짚어낼 필요가 있고, 속초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맥락도 함께 고려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는 현대 속초와 역사적 속초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4 ‘속초시지’ 발간으로 인해 이제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향후 단순히 한 번의 기록물을 남기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적 변화가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 중요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거나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면, 기존의 시지를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통해 단지 과거의 기록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반영하는 살아 있는 기록물이 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지는 전자책이나 웹사이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고, 이렇게 제공된 정보에 의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쉽게 온라인 상에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디지털화 보존의 의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지는 단순히 보관되는 책자가 아니라,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역 학교나 대학과 협력하여 시지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의 브랜딩 효과로 시지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시지에 수록된 역사적 장소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투어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식도 있다.

이제부터는 지역의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와 기록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역 아카이브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몇 번에 걸쳐 강조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문화유산의 계승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며,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은 속초의 도시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두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속초시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속초시지』가 향후 우리 지역의 미래 100년의 발전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10년 단위 개량판이 발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줄 것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기울이신 속초문화원 류은숙 사무국장님과 이두범 주임, 김명희 주임, 그리고 속초시 문화체육과 국가유산팀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해본다.

[속초시지(東草市誌)]



속초시지 1권 (712p)

I. 자연·인문 환경

II. 역사

(1권 집필진) 김우람, 김창섭, 윤미연, 이상균, 이상수, 이현주, 임재영, 장경호, 최영택, 한상훈



속초시지 2권 (784p)

III. 국가유산

IV. 민속과 전통

(2권 집필진) 김용문, 김재환, 송주은, 오광수, 이상균, 이상수, 이유선, 장정룡, 정상철, 정지연, 한정규, 홍성익, 홍순석

속초시지 3권 (728p)

V. 지명

VI. 성씨·인물

VII. 정치·행정·의회·사법



VIII. 산업·경제·사회간접자본

(3권 집필진) 김영필, 김정환, 김태환, 이상균, 이수영, 장재환, 정상철, 한정규

속초시지 4권 (840p)

IX. 관광·축제

X. 문화·예술·체육·언론·출판

XI. 종교·교육

XII. 보건복지·사회단체

(4권 집필진) 김종현, 양용석, 이상순, 이수영, 이시경, 이재선, 이종식, 장재환, 조성진, 최희선



별권(1,36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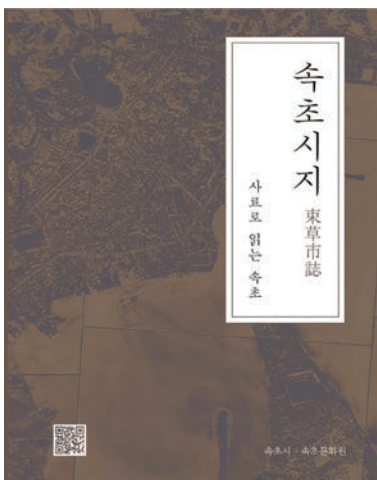
사료로 읽는 속초 (40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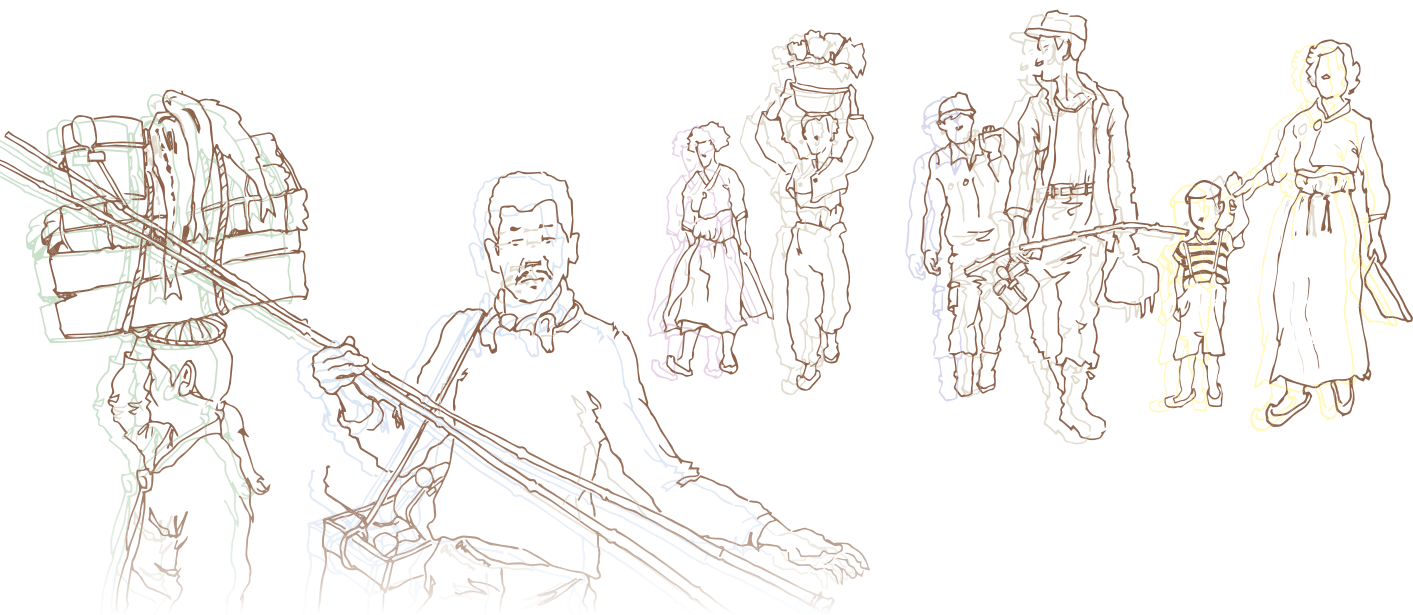
구술로 듣는 속초 (472p)

사진으로 보는 속초 (488p)

(별권 집필진) 고명녀, 권영희, 김시권, 윤영미, 윤진순, 이상균, 이우선, 임흥빈, 장경호, 정지연, 지학인, 최수홍, 홍춘희, 황주승

속초문화





사람 냄새 가득한 마을의 기록을 위해

최문경, 김현미 등 (2024 향토사안내서 시민기록단)

지난 3년 동안 속초문화원의 ‘속초향토사안내서’는 초등 교사를 위한 속초향토사안내서, 중등 교사를 위한 속초향토사안내서, 속초시민들을 위한 향토사안내서 등을 발간해왔다. ‘속초’ 지역의 유래부터 시작하여 행정구역과 삶 속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속초의 역사와 문화재 그리고 자연·인문 환경과 식생 등의 내용을 구성하여 과거와 현재의 우리 지역 모습을 충실히 담아내었다.

시존 1의 향토사안내서가 이렇듯 속초 지역에 대한 개론을 정리했다면, 2024년부터 진행되는 향토사안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속초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가까이 들려주려는 기획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향토사안내서는 몇 몇 이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그러나 한 명 한 명 모두 빛나는 삶으로 가득 찬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지역을 보다 제대로 기억하고 기록하려고 한다. 실은 그 한 명 한 명의 삶이 모여 우리의 역사를 이루니,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 기록단’이 되어 우리의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함이다. 앞으로 펼쳐진 향토사안내서 시존 2는 주민이 주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시민기록단으로 꾸준히 담아낼 계획이다.



이번 2024년 시민기록단의 주제는 ‘속초 아바이마을 거주 여성의 직업과 생활사’ (부제: ‘오징어할복장과 아마이’)로 잡았다. 2023년 청호동 오징어할복장을 문화공간으로 새로 조성하여 개관식 하는 행사에 갔다가 한 어머니의 말씀을 우연히 들은 것이 이번 주제의 시작이었다.

“아고,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랑 정신없이 일하고 놀고 …… 그때가 재미졌지”

힘겨웠던 시절이라고 어디 고단한 이야기만 있었겠는가. 정과 그리움이 담뿍 담긴 그 말씀과 환한 웃음이 잊혀지지 않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주제가 선정되었다.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는 ‘아바이마을’에서 ‘아마이’(어머니의 함경도 사투리)로 살아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바이마을’, 즉 신헌민과 남성성의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그 마을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평생 노동을 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고자 했다. 근현대사에서 많이 가시화되지 못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이 이번 기획의 의도이다. 제대로 된 월급봉투를 받거나 안정적인 채용 상황이 아니기에 이전의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그저 ‘반찬값’ 정도 버는 것으로 폄하되기 쉬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들의 경제 활동은 ‘반찬값’ 수준을 넘어 집을 사고,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등 가정의 매우 중추적인 기여를 하였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경제활동 이외에 전쟁과 분단 등 속초의 근현대사에 얽힌 가족사 등 가슴 아픈 개인들의 역사도 놀라웠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이번 기록에서는 주로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에 중심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돈 벌어 일만 원 이상을 내 몸에 투자해 본 역사가 없어요”라는 구술자님의 말씀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남편이 인정해준 평생 일한 내 공” 그 말 한마디로 원망도 후회도 없다는 구술자의 말도 다 우리 사회의 근현대사를 살아내고 산업화에 이바지 한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여자들의 일과 경제활동이 실은 가정 하나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그래서 보조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그들도 엄연히 독립적이고 당당한 산업 경제의 주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두 개의 글을 소개한다.





박경훈(1952년생, 청호동 거주)



유옥춘(1952년생, 청호동 거주)



민봉순(1938년생, 청호동 거주)



안만근(1943년생, 청호동 거주)

돈 벌어 일만 원 이상을 내 몸에 투자해 본 역사가 없어요



박 경 훈(72세)

주요약력 1952년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출생
1971년 남편 석정식과 결혼.
1972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첫째 딸 출산
1976년 강원도 태백시 사북에서 둘째 딸 출산
1983년 속초 이주. 명태, 오징어 일 시작
1986년 셋째 아들 출산
2021년 남편 사망
2022년 청호동 경로당 총무일 시작

면담자 : 최문경(시민기록가)

면담장소 : 청호동 박경훈 자택

면담시간 : 2024년 8월 21일(수) / 9월 20일(금)

어린 나이에 모심고 벼 베고

어머니, 고향과 가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십일 남매 중 아홉 번째인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열한 번째 동생과 저밖에 없어요. 위로 오라버니들이 계속 죽으니까 부모님이 제 출생신고를 늦게 하셨어요. 원래 48년생인데 4년 늦게 출생 신고해 52년생이 되었어요. 태어난 곳은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에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학교는 어디를 다니셨어요?

저는 금구초등학교 졸업하고 3년 정도 농사일을 돕다 이월재건중학교를 다녔어요. 재건중학교에서 배운 부기와 주산이 취직해 일할 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농사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초등학교 졸업할 즈음 큰오빠가 군에 입대하게 되어 집안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집안일을 도왔던 제가 부모님 농사일도 같이한 거죠. 봄이면 모도 심고, 피도 뽑고, 가을이면 벼 베기도 했어요. 그때 진천에는 담배 농사를 많이 했는데 가을에 담배 조리일도 한 이십일 정도 했어요.

담배 조리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담뱃잎을 따서 찢 후에 건조한 잎을 50g씩 단을 묶는데 이때 단을 잘 묶는 것에 따라 수매할 때 A, B, C 등급이 매겨져요. 단을 잘 묶고 손이 빠른 사람들을 서로 확보하려고 싸움도 일어나고 했지요. 제가 묶는 것들도 꽤 좋은 등급을 받았어요.

말씀 중에 재건중학교¹⁾라고 하셨는데 일반 중학교와 다른 곳인가요?

마을에서 깨어있는 분들이 사재를 내어 설립한 학교인데 3년 과정이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3년 후부터 다녔는데 이때 주산과 부기를 배웠어요. 제가 주산을 아주 잘 했어요.

첫 월급 받아 고무 쓰레빠 산 게 전부

큰오빠가 제대한 후에도 계속 농사일을 하셨어요?

큰오빠 제대한 후에는 재건중학교 다니면서 진천 광해원에 있는 가발공장에 취직했어요. 7-80명 일하는 큰 공장이었는데 마을로 다니며 일할 사람을 모집했어요. 도시락 싸 가지고 밤에 가서 일하고 낮에는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가발공장이 첫 취업이신데 그때 받은 급여로 무얼 하셨어요?

그때 급여가 만 몇 백 원이었을 거예요. 올케언니가 집을 나가 아버지가 두 살배기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번 돈은 조카 분유, 비오비타, 원기소 등 먹거리와 아기 옷 사는 데 거의 들어갔어요. 첫 월급 받아서 저를 위해 쓴 것은 고무 쓰레빠 한 켤레 산 게 전부예요. 당시에 스카트라고 하는 주름치마가 유행했는데 같이 일했던 친구들은 월급 받아 사 입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사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돈 벌어 내 몸에 일만 원 이상 투자해 본 역사가 없어요.

재건중학교 졸업 이후에도 계속 가발공장에 다녔어요?

1)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재건국민운동이 벌어졌을 때 만들어진 간이 학교.

계속 다니다가 열아홉 살 때 조카 키우면서 큰 올케 언니와 대판 싸우고 난 후 그 이튿날로 서울에 왔어요.



금성제과 동료들. 앞줄 왼쪽이 박경훈님

미리 계획하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서 거처할 곳이 필요했을 텐데요.

금성 제과 모집 광고를 보고 금성 제과에 들어갔는데 기숙사가 있었어요. 회사 사장네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여성기숙사로 사용했고, 남성기숙사는 따로 있었어요. 식사를 주지 않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그때 받은 월급으로는 뭘 하셨어요?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은 옷도 사 입고, 화장품도 사고, 필요한 물품도 사는데 저는 기본 생활비 조금만 남기고 조카 먹고 입히라고 다 엄마께 보내드렸어요.

속초 온 다음 날부터 명태 떼러 가고

남편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금성 제과 다닐 때, 금성 제과에 취직한 남편을 만나 2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결혼하고 바로 첫애를 임신했어요. 2-3개월 때 경상북도 상주 시댁에 가서 살았어요. 저희들 방이 없어 소 여물 주는 데에서 밤에는 전깃불도 없이 촛불 켜고 따로 살았어요. 첫 딸도 시댁에서 낳았어요.

속초 아바이마을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남편이 속초에서 배를 타게 되어서 왔어요.

속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사 온 다음 날 바로 명태 떼러 갔어요. 옆집 사는 동생이 충청도 사람이었

는데 일하는 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가서 보니 명태를 그물에서 떼어내는 일이었어요. 옷을 너무 얇게 입고 나가서 몸이 오그라들고 살을 에이는 추위에 제가 달력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3월 28일,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명태 떼고 임금은 얼마를 받으셨어요?

그때는 돈으로 주지 않고, 명태 한 두름 20마리와 파치 난 것들을 많이 줬어요. 파치 난 것도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명태를 집으로 가져오면 상인에게 팔았나요?

거의 모든 집에서 명태를 하니까 돈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받은 명태를 말려서 반찬 해 먹고, 명태 대가리는 폭 고아서 개 먹이로 주고 개를 키워 팔았어요.

개도 키우셨어요?

그때 우리 집 마당에 작은 돼지 움막이 있었는데 이 움막에서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개도 키웠어요. 친정 동생이 계란 5개를 쥐서 부화해 생산한 닭이 50마리까지 된 적도 있어요.

늘 잠이 부족한 오징어 일

오징어 할복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들 범호를 낳고 한 달 몸조리하고 나서 다시 일하러 다녔어요. 처음엔 할복을 배우지 않고 할복한 오징어를 철조망에 널어두는 것부터 했어요. 몇 년 뒤에는 대나무에 오징어를 끼웠지요. 그때는 지금처럼 할복장 건물이 없어서 난전에 눈이 오면 가마니를 쓰고 일을 했어요.

오징어 공동할복장이 생겨서 좀 더 편해지셨어요?

그럼요. 오징어 공동할복장은 여기가 유일해요. 속초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여기 한 곳 밖에 없어요.

오징어 할복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오징어 할복장 안에 구획이 정해져 있는데 한 구획을 ‘단꼬’라고 불러요. 덕장 주인들은 사전에 단꼬에서 오징어 일을 할 사람들을 모아요. 보통 한 덕장



1950년대 할복한 오징어를 건조
대에 널고 있는 풍경
(속초문화원 제공)



오징어 공동할복장 단꼬

마다 4~5명 일하는데 덕장 주인들이 작업할 오징어를 사오면 할복장에서 오징어를 떼겨요.²⁾ 보통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떼긴 오징어를 장대에 꿰는데 그 일도 3시간 정도 걸려요. 썬 장대를 덕장에서 건조해요. 건조하는 시간에는 집으로 돌아가 부족한 잠을 자는데 건조되면 덕장 주인에게 연락이 오는 거죠.

그때부터 손질이 시작되나요?

오징어를 어느 정도 건조하면 손질을 시작해요. 손질은 보통 5~6시간, 길어지면 8시간까지도 해요. 먼저 장대에서 약간 마른 오징어 눈을 튕겨요.³⁾ 다시 건조해 몸통에 오징어가 붙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오징어 귀를 제끼고, 또 건조해 반대 방향으로 제껴진 오징어 귀를 세우고 다시 건조해요. 다 마르면 책책이라고 부르는, 울퉁불퉁한 오징어를 잘 펴지도록 장대에서 오징어를 빼내 기다란 널빤지 위에 착착 쌓아요.

2) 가르다의 사투리

3) 오징어 눈을 떼어낸 자리에 대나무 가지를 끼워 넣는 작업

손질 과정이 꽤 많아요. 그러면 끝나나요?

오징어 일에 열두 번 정도 손이 가요. 책책이 손질을 마치면 완전히 말린 후에 오징어를 펴 모양을 잡아요. 20마리씩 축 잡아 놓아야 마무리 되요. 요즈음엔 오징어가 귀하고 값이 비싸 10마리씩 축을 잡고 있어요. 오징어 일은 생물을 다루는 일이라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늦춰질수록 오징어 상태가 달라지니까요.

오징어가 건조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합하면 거의 하루 종일이겠어요. 잠은 언제 주무세요?

새벽에 나갔다 건조할 때 잠시 눈 붙이고 다시 나가 손질하니까 잠이 늘 부족했어요. 손질하면서 장대를 마주 잡은 두 사람이 서로 졸기도 했어요.(웃음)

하루에 보통 얼마나 하세요?

오징어 한 두름이 20마리예요. 보통 백 두름을 하는데 한 바리라고 해요. 그럼 2,000마리를 하는 거죠.

엄청난 양이네요. 오징어 일을 해서 많이 버셨어요?

할복비는 처음엔 일당 200원이었는데 지금은 팔만 원을 받아요. 꺾는 것도 일당 팔만 원이에요. 손질비는 두름으로 계산해서 예전엔 20마리 한 두름에 칠십 원이었는데 지금은 팔백 원이에요. 백 두름 하면 팔만 원 벌어요. 손질은 두름으로 하기 때문에 양에 따라 임금 편차가 심해요. 삼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사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할복이나 손질하는 데 양이 많아 시간이 더 걸리면 덕장 주인들이 더 계산해 주기도 했어요. 오징어 일은 있을 때는 꽤 많이 버는데 매일 있는 일이 아니라서 꾸준하지는 않았지요.



박경훈님이 명태 할복해서 닳은 칼

오징어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칼이 유일해요. 저는 오징어 손질 일을 하는 사람이라 오징어 일할 때는 칼을 쓰지 않고 주로 명태 때길 때 칼을 사용했어요. 명태를 하도 많이 때겨 처음에 25cm 내외 되는 칼이 10cm 안되게 닳아요. 지금까지 사용한

칼이 20개 이상 되어요.

할복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데 다툼이나 갈등이 있지 않았나요?

남 험담이나 남의 말 할 새가 없어요. 우리들이 우스갯소리로 바빠 죽을 새도 없다고 했죠. 먹을 게 나오면 서로 빨리 와서 빨리 먹고 빨리 일하자 이랬어요. 내 돈 벌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꾀부리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덕장 주인들이 제공해요. 집에서 직접 밥을 해오는 주인들도 있고, 음식점에서 배달시키는 주인들도 있고 그랬어요. 주로는 집밥을 해 줬죠.

오징어 일이 줄어든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15년쯤 전부터 국내에서 잡히는 양이 적어져서 해외에서 냉동 오징어를 수입해 왔어요.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건 한 5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덕장에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오는데 1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있어요.

일과 함께 살아온 세월, 몸 병들다

오징어 손질 말고 다른 일은 안 하셨어요?

오징어 손질하다 아들도 크고 일도 힘들고 해서 고속버스터미널에 입사해서 청소 일을 13년 정도 했어요. 3교대 근무였는데 월급을 칠십사만 원 받았어요. 제가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야간 조에 배당되면 새벽에 일 마치고 리어카를 끌고 아바이마을 끝까지 다니면서 고물을 수거했어요. 고물 수거 일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직장을 다녔는데 왜 힘든 고물 수거까지 하셨어요?

두 딸 결혼과 범호 공부시키느라고 계속 돈이 들어갔어요. 그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자는 시간을 쪼개서 고물 수거를 한 거죠.

고물 수거를 해 오면 어떻게 해서 넘기는 거예요?

고물 수거한 것에서 돈이 되는 구리, 알루미늄, 철 등을 분리해 놓으면 고물 수거하는 사람이 와요. 우리 집 부엌 뒷공간에 가면 고물 수거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박경훈님이 고물에서 분리한 구리, 철 등

고물 거래는 정해진 곳이 있나요?

강릉에서 온 사람하고만 했어요. 뭐 더 쳐준다 해도 거기서 거기예요. 나는 한번 정한 사람하고 끝까지 가요. 내 성격이 그래요.

일해 온 세월만큼 몸도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지금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경로당에 수지침 봉사하러 오는 선생님이 진맥을 짚더니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강으로 버티고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속초에 와서 10년쯤 되었을 때 밤에 잠을 자다 깨었는데 온 몸에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밤을 겨우 견디고 다음 날 병원엘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겠고, 물도 마시기 어렵고, 커피만 먹었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내 재산 상황에 대해 얘기하며 정리를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다시 병원엘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강릉에 있는 한 의원엘 가보라고 해서 그 의원에서 12일 입원했어요.

그때 입원하고 몸은 회복되었어요?

네. 얼추 몸도 회복된 것 같아서 퇴원했어요. 범호가 어리니 더 입원해 있을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2013년도 8월 2일 자다가 새벽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두 달 인가 입원했어요. 디스크 수술은 몇 번을 더 했어요. 그러니 지금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죠.

아이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던 삶



박경훈님의 두 손

첫 딸을 시집에서 낳으셨다고 했는데 출산할 때 애기 좀 해주세요.

남편이 팔 남매의 둘째인데 당시 시댁 식구가 일꾼들까지 열세 명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출산이 다가올 때까지 열세 명 빨래며 밥이며 식모처럼 일만 했어요. 게다가 시댁이 정육점을 했는데 돼지를 도축하면 물 끓이고 털 뽑는 정리 일을 내가 도맡아 했어요. 큰딸 출산도

가마니 깔고 저 혼자 했어요. 태줄은 늦게 들어온 남편이 가위를 못 찾아 낫으로 잘랐어요.

몸조리는 하셨나요?

몸조리라는 게 뭐 있나요? 그때가 12월이었어요. 겨울에 무가 많이 나잖아요. 시어머니가 경상도식인지 겨울 무 속을 손가락으로 긁어내어 들기름에 볶아서 못국을 푹 끓여줘서 1주일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게 아주 꿀맛이었어요. 그 뒤에 자연산 미역 장갑 하나, 큰 솥에 끓여 먹고 끝이에요. 미역국 먹는 날부터 다시 식구들 밥하고 일하러 다녔어요.

거의 모든 시간을 일하면서 보내셨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셨어요?

가정 사정이 있어서 어려서 아이들과 떨어져 지냈어요. 두 딸은 열일곱, 열세 살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제 돌봄을 거의 받지 못 했지요. 딸들에게는 미안한 게 많아요. 딸들은 밥 끓이지 않으려고 일만 했다면 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아이들이 한창 클 때는 간식도 해 주셨어요?

세 끼 식사 외에도 감자를 두툽하게 썰어 말려서 꾸덕해지면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기름에 튀겨 설탕을 뿌려 만들어주곤 했어요. 먹성들이 워낙 좋았어



아들 초등학교 운동회

요. 뭘 해 놓든 금방 비우고 다 먹었어요.

혹시 아이들에게 특별히 해주신 게 있으세요?

해준 것보다는 오징어 일은 양에 따라 돈을 받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도 일을 시켰는데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내 고생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넘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들 소풍 때는 같이 가셨어요?

딸들은 떨어져 있어서 못 갔고, 아들 범호는 소풍이나 운동회에 꼭 시간을 내어 함께 했어요. 범호 6학년 때 제가 어머니 회장을 했어요. 운동회 때 보면 마을 주민들로 운동장을 꽉 채웠고 동네 잔치였어요.

엄마랑 떨어져 살았는데 두 딸들이 서운해 하지 않았어요?

딸들이 엄마 없이 너무 힘들게 자랐어요. 한참 엄마 손이 필요한 어린 시절에 내 손을 떠나 있었던 딸들이라 아직도 멋진 것들이 있죠. 그래도 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엄마 삶에 대해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식 향한 마음이 나누는 삶으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제가 경기도 오산의 대성 모방에 취직했어요. 대성 모방에서 짜집기를 했는데 재건중학교에서 배운 주산과 부기 때문에 반장까지 할 수 있었어요. 반장이 원단을 배분하고 월급을 계산해 월급봉투를 나눠주기 때문에 명절 같은 때에는 선물이 가득 쌓였어요. 주말에는 오산 컨트리클럽에서 캐디로도 3년 정도 일했어요. 돈도 제법 모이고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며 제 인생 가장 빛나는 호시절이었어요.

지금 집은 언제 장만하셨어요?

아들 범호 돌잔치 앞두고 마련했어요. 세를 살다가 주



대성모방 동료들. 맨 왼쪽이 박경훈님

인 할머니에게 막걸리 사 들고 가서 담판을 지었어요. 집을 저에게 팔라고요. 그 분이 제 사정이 딱해 보였는지 막걸리를 얻어먹고 집을 싸게 파셨어요. 오징어 일하고 지갑에 25만 원 있었는데 계약금으로 걸고 대성 모방 다니면서 모아둔 돈 250만 원을 주었어요.

아바이마을에 정착하면서 마을 주민들과는 잘 지내셨어요?

이북피난민들이 많이 살기는 해도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은 없었어요. 결국 마을 통하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니까요. 저는 명태, 오징어 일하면서 이웃들과는 잘 지냈어요. 건조인 협회에서 봄, 가을로 차량 2, 3대 대절해서 관광도 다녀오고 했어요. 할복장에서는 가축 잡아 술과 함께 서로 힘든 일에서 잠시 벗어나 즐겁게 놀기도 했어요.

지금 마을에서 맡고 있는 일이 있나요?

경로당 총무일을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30년 전부터 경로당에 월 2만원 씩 후원한다 생각하고 국수 세관이나 소주 뒷병을 사다 드리곤 했어요.

경로당에 오랫동안 후원하셨네요. 다른 곳도 후원하신 데가 있으신가요?

제가 딸들과 10년 떨어져 살았잖아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월드비전에서 굶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 애들도 자라면 저렇게 자랐을 텐데 싶어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월드비전하고 해비타트에 월 일만 원 씩 후원했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제 후원으로 결연을 맺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 아이도 있고, 아직 대학생인 아이도 있어요. 가끔 연락도 했지요.

지금까지도 후원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은 아들한테 사정이 생겨 손녀딸을 제가 키우고 있어요. 손녀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적으로 발생해요.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이 늘어나니 고민 끝에 10년 후원을 중단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손녀딸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손녀딸은 하늘이 마지막으로 내게 준 선물이에요.

경로당 총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까요?

노인분들이 너무 집에만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밖으로 나오셔서 어울려야 우울감도 덜하고 건강할 수 있어요. 경로당에서 1년에 한 번 관광을 가는데 그런 데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 좋겠어요. 젊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마을 일하는 박경훈님

사람들도 자신의 부모님만 생각하지 말고 마을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여기고 자주 살펴드렸으면 해요.

어머니에게 일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내가 살기 위해,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 손녀딸 잘 키우기 위한 책임감이에요. 아바이마을에 살면서 범호 넣고 애들 아버지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두 딸과 범호 잘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손녀딸이 오고 나서는 손녀딸만 생각하며 살아요.

선물처럼 어머니께 온 손녀딸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면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초문화

남편이 인정한대요, 내가 일한 공로를요



안 만 근(81세)

주요약력 1943년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출생
1966년 남편 오영수와 결혼으로 청호동 정착
1968년 청호동에서 첫째 아들 출산
1969년 오징어 할복일 시작
1971년 청호동에서 둘째 아들 출산
2011년 남편 사망

면담자 : 최문경(시민기록가)

면담장소 : 청호동 안만근 자택

면담일 : 2024년 8월 22일(목) / 9월 25일(수)

결혼해 아바이마을에 정착하다

어머니, 고향과 가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양군 서면 서림리가 제 고향이에요. 4남매 중 막내였는데 위로 두 오빠는 돌아가셨고, 언니가 양양 조산리에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일곱 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워주셨는데 남의 손 안 타고 단정하게 잘 길러주셨어요.

그럼 결혼하면서 여기에 오셨나요?

스물세 살에 양양에서 속초로 시집을 왔어요. 남편은 이북 피난민이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중신 할머니 통해 만났는데 완전히 속아서 결혼했어요. 중신 할머니가 시집



혼례식 때 안만근님

가면 집도 있고 형제도 많지 않다고 했어요. 시누이 하나, 시동생 하나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 시동생 둘에 시누이가 넷이에요. 7남매의 장남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북에서 돌아가셨고 홀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마음은 딱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건 아버지 때문이에요. 시골에서 ‘홀애비 딸이 시집 못 살고 쫓겨 왔다’는 이 말이 귀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신 아버지한테 제 결혼으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집보내려고 큰오빠가 나를 데리고 시댁으로 와 결혼식을 하는데 전통 혼례상 차려 놓고 서로 맞절하는 예식도 없고, 잔치도 없었어요. 그냥 혼례상 차려 놓고 사진 한 장 찍은 게 다예요. 큰오빠가 너무 억울해 “이런 법이 어딴냐”며 울고 가셨어요.

그 집이 지금 이 집인가요?

이 집은 두 번째 집이에요. 우리 첫째를 낳고 월남 전쟁에 파병을 간 시동생

이 전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원호청에서 대부받아 지금 이 자리에 조그맣게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15년쯤 살다 이 집을 다시 지은 거예요. 지을 때 돈이 많이 모자라서 처음 설계했을 때보다 많이 부족하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지었는데도 지어놓고 나니 괜찮아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여태까지 왔네요.

한 두름 스무 마리 할복하면 오 원

결혼하고 바로 일을 하셨어요?

처음엔 일을 할 줄 몰라 2-3년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결혼했을 때 남편이 목선 타고 시동생들과 미역 일을 했는데 살다 보니 남편 수입만으로 안 되겠더라구요. 4-5년 지났을 때부터 오징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징어일 중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징어 할복을 했어요. 처음엔 오징어를 어떻게 때길¹⁾ 줄 몰라 오징어 등에 다 대고 거꾸로 때기기도 했어요. (웃음)

할복 작업은 어디서 하셨어요?

예전에는 지금 있는 이곳이 다 갯가였는데 거기에 산판다리²⁾가 있었어요. 산판다리에 배를 대고 오징어를 산판다리 위에 쏘아 그 자리에서 바로 할복을 했어요. 할복한 오징어를 갯가 물에서 씻어 놓으면 오징어를 산 덕장 주인들이 가져갔어요. 오징어 할복장이 지어진 후엔 할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매립해 육지가 되었지만 예전엔 다 물이었어요.



1950년대 오징어를 실은 배가 정박했던 산판다리 (속초문화원 제공)

당시 오징어 할복비는 얼마를 받으셨어요?

한 두름 20마리에 오 원 받았어요. 그 오 원 벌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 정해진 양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몇 원 벌면 그것으로 하루하루 살았어요.

1) 가르다의 사투리

2) 배를 달 수 있도록 나무 널빤지를 이어 붙여 길게 연결해 놓은 다리

오징어 할복 외에 손질은 안하셨어요?

손질은 안 하고 축 잡는 걸 했어요. 오징어 할복하고 건조해서 손질 끝나면 가서 축을 잡아줬어요. 할복과 축 잡는 노임을 따로 받았어요. 오징어 일은 여러 사람을 벌어먹이는 일이에요.

노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덕장을 운영해 보시지 그랬어요?

덕장을 운영하려면 남자들 일이 많은데 우리 아저씨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밥 먹다가도 오징어 때기러 오라면 가야 하고, 공장도 그랬구요.



공치 통조림 공장이었던 백일산업터 (속초문화원 제공, 2022년)

칠십 여덟까지 공장 노동자로

공장이라면 어떤 일을 하는 공장이었어요?

청호동에 콩치 공장이 있었어요. 콩치 간스메³⁾공장이었는데 콩치를 때기고 토막을 내면 소금에 절여 간스메를 만드는 거예요. 콩치 일은 4월에서 한, 두 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오래하지 않았어요.

3) 통조림의 일본어

공장에서 임금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일당으로 받았어요. 일당이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그날 받아서 생활했어요.

콩치 공장 말고 다른 공장도 다니셨어요?

게 공장하고 노가리 공장을 다녔어요. 노가리 공장을 가장 오래 다녔는데 14년을 다녔어요. 고성에 대순진리회 쪽으로 가다 보면 한일건업이 있는데 그 공장에 다녔어요.

고성은 거리가 좀 먼데 왜 그리로 옮기셨어요?

오징어 일은 한번 할 땐 많이 버는데 매일 있는 일이 아니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어요. 작은애가 대학 들어가니 돈 감당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명태 때기는 걸 배워 노가리 공장에 다녔어요. 공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니 좀 나아졌어요.



남편과 안만근님

노가리 공장에서는 월급으로 받으셨어요?

네. 노가리 때기는 걸 잘하는 사람은 많이 벌었어요. 저는 잘 못 때겨요. 손이 빠른 사람은 많이 벌고 느린 사람은 적게 버는 거죠. 그래도 매월 많을 때는 백 칠, 팔십 만원, 적을 때는 백 사십만 원 정도 되니까 살면서 저축도 하게 되었어요.

남편보다 더 많이 버셨겠네요.

남편은 배 못 나가는 날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꾸준히 따지면 내 수입이 더 낫죠.

공장에서 일할 때 힘들진 않으셨어요?

크게 힘든 건 없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새벽 4시에 공장 봉고차가 와서 태우고 가는데 커브 틀다 사고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응급치료 정도에서 끝났는데 차를 뒤에서 받아 맨 뒤에 앉은 저만 크게 다쳤어요. 코뼈도 부러지고, 어깨도 다치고, 갈빗대도 나가고 해서 강

릉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두 달, 속초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와 두 세 달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비는 회사에서 냈고, 1년 정도 쉬었어요.

큰 사고였는데 후유증은 없으세요?

사고 이후 차를 탈 때 절대 뒤에 앉지 않아요. 몸도 사고 이전만 못하죠.

그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다음에는 양양농공단지 안에 있는 홍계 공장을 다녔는데 공장에서 출퇴근 차량을 보내줬어요. 홍계는 공정이 많은데 먼저 게 크기를 선별하면 게 몸통을 탈각⁴⁾하고, 게살을 빼내요. 거기도 임금을 월급으로 줬어요. 그때는 8시간 하면 백 사, 오십 만원이고, 야근까지 하면 백 칠, 팔십 만원 되었어요.

일을 참 많이 하셨네요?

쉬지 않고 일하는 거 다했어요. 칠십 칠, 팔 세 되니까 일하는 게 싫어서 스스로 나왔어요. 칠십 여덟에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받았어요. 계속 일해 오면서 차곡차곡 쌓인 돈이니 받을 땐 액수도 크고 뿌듯했지요.

남편을 이해하니까 견뎌던 거죠

남편은 어머니 일한 걸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는 죽으면 할 말이 하나도 없다” 했더니 남편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난 해 놓은 게 하나도 없고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애들을 크게 공부 많이 시킨 것도 아니고 별로 한 게 없으니까”라고 말하니 자기가 인정한다고. 내 일한 공로를요.

남편 고향은 어디세요?

함경북도 원산 여도섬이래요. 중학교 다니다 열다섯 살 때 전쟁이 나서 피난을 왔거든요. 시아버님이 3대 독자셨는데 여도섬에서 어장과 땅이 꽤 많았다고 했어요.

남편이 피난을 왔을 때 처음엔 어디에서 사셨어요?

처음엔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 때 남편이 인쇄소에 다녔어요. 돈이 안 되니까 돈벌이를 찾아 가족이 모두 이주해 아바이마을에 정착한 거죠.

4) 게 껍질을 분리하는 과정



피난 내려와 부산에서 남편이 일했던 인쇄소

남편은 어떤 분이셨어요?

술을 안 먹으면 사람이 말이 없고 순해요.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술주정이 보통 아니에요. 아이들과 시어머니는 벌써 도망가고 저만 집에 남아 술주정을 받는 거죠. 나는 도망가봤자 온 동네 다니면서 찾기 때문에 집에서 견디는 게 나아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남편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니까 견뎠던 거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일하러 갔다 집에 오면 밥도 해 놓고, 술도

예전보다 덜 마시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둘이에요. 첫째가 68년생이고, 둘째가 세 살 아래예요. 첫째는 저와 살며 현장 일을 하고 있어요. 둘째는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어요. 막내딸이 있었는데 여섯 살 때 물놀이 하다 죽었어요. 말도 잘하고 참 밝은 아이였어요. 당시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인기가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은 “엄마, 아빠 닮은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나왔다”하는 거예요. ‘이주일’을 말하는 것을 알고 한참 웃은 기억이 있어요. 나이 들고 보니 딸이 살아있으면 덜 외로울 텐데 싶어요.

딸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남편은 아이들과 잘 지내셨나요?

성격이 괴팍스러워서 아이들이 아버지 곁에 잘 가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애기도 좀 나누고 하면 좋을 텐데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잘하지 못하는 남편한테 많이 서운했어요.

일하러 갈 때 아이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키워주셨어요. 밥해 놓고 나가면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챙겨주는 거죠.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돌봐주셨어요. 어머니께 서운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손이 귀한 집에 아들을 낳아주었으면 돌잔치를 해 줄 법도 한데 아



무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첫째, 둘째 데리고
사진관에 가서 찍
어준 게 다예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겠어요.**

살갑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큰
소리 난 적은 없어요.
시댁 식구 모두 하고
도요. 이북사람들이
라 말이 세서 그렇지
잘 지냈어요. 그런데

시집와서 시어머니께 시댁에서 잘해 먹었던 음식이며 집안일 등을 배우고 싶
었는데 일절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명태를 때겨 창란을 추린 후 어
떻게 창란을 절이는지 보고 배워야 하는데 눈치껏 스스로 알아서 하느라 고생
을 좀 했죠. 이북 음식 중에 명태순대, 오징어순대, 가자미식해 등도 이웃집에
서는 겨울에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해 본 적이 없
어요. 그게 아쉽긴 해요.

나는 어디든 해외여행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살면서 가장 기뻐던 때가 언제였나요?

살면서 기뻐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꿈으라면 아이들 대학 들어
갔을 때, 두 아들 군대 가서 무탈하게 마치고 제대했을 때, 작은아들 인도네시
아에 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다 갔어요. 세 남매 낳고 사는데 손주
들 보니까 기쁘더라구요. 그래도 제 삶에 여유가 생겼나 봐요. 사실, 남편이 십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요 몇 년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절이에요.

가장 슬펐던 때는요?

그건 말도 못하게 많죠. 그래도 속아서 결혼했을 때가 가장 슬펐죠.

어머니가 고생하며 번 돈으로 자신에게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어떤 거예요?

딱 한 가지 있어요. 게 공장에서 퇴직금을 탔잖아요. 그 퇴직금으로 임플란트를 했어요. 비용이 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퇴직금까지 보태니 딱 맞출 수 있었어요.

식사는 잘 하시겠네요?



동네사람들과 의상대 나들이.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안만근님

씹는 게 편안하니 사는 게 편안해요. 없어서 못 먹지요.(웃음) 못 씹고 못 먹는 사람 보니 치아 해 넣길 잘했다 싶어요. 사실 7, 8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줌마는 기침하면 사람들이 곁에 안 가”라고요. 너무 말라서 폐병 환자로 보였던 거죠. 그때는 아주 말랐는데 차츰 회복해서 지금은 살도 오르고 몸도 마음도 편해요.

그럼 앞으로 꼭 해 보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동네 계모임이나 행사로 국내 여행은 몇 번 다녀왔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 해외여행을 못 간 거죠. 어디든 해외여행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게요. 어머니께 일은 어떤 의미세요?

노가리 공장 다니면서 자식들 가르쳤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돈 벌어 살잖아요. 작은아이는 대학까지 가르쳐서 인도네시아 가서 잘살고 있고요. 집 장만하고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그게 다 일한 보람이죠.

어머니께서 해 보고 싶은 한 가지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같이 바라게 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면담에 감사드립니다.

속초 지역 현대사의 재조명과 기록의 중요성

김귀옥
(한성대 교수)

1. 들어가며

* 이 글에 사용된 미군 관련 사진 자료는 베테랑 미군들이 속초시립박물관에 기증한 것이고, 박물관 측의 협조로 사용했음을 밝힌다.

인구는 한 사회의 특징을 일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의 등록인구는 1,556,970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0%이다. 2022년 강원 전체 인구 중 속초의 등록인구는 84,011명(5.4%)로서 원주, 춘천, 강릉, 동해시에 이어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¹⁾ 속초는 대체로 전출 인구에 비해 전입인구가 조금 많은 편이다. 2016년 이래로 2022년까지는 꾸준히 (+)전입인구를 보이다가 2023년에는 (-)전입인구를 보이고 있다.²⁾

또한 속초는 연간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는 지 꽤 오래되었다. 주요 관광지로는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속초해수욕장, 바다향기로, 국립산악박물관, 설악산국립공원과 신흥사, 속초시립박물관 등 50여 개소를 꼽을 수 있다.

빅데이터 상의 속초 관광객은 2천만명을 넘겼다. 특히 2023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지역 관광거점 명소들이 빅데이터 등에 의해 부상되고, 교통여건이 양호(권원근, 2023)

1) 「주제별 통계」 《강원통계정보》 (<https://stat.gwd.go.kr/gwstat>, 검색일: 2024/12/10).

2) 「인구 및 가구」 《속초스마트데이터》 (<https://www.sokcho.go.kr/sc/smart/indicator>, 검색일: 2024/12/10).

<표1> 속초시 주요 관광지 관광객 현황

(단위: 명)

연도별	내국인	외국인	계	증감
2017년	17,181,039	410,140	17,591,179	
2018년	16,669,620	441,804	17,111,424	-2.7%
2019년	17,392,025	392,769	17,784,794	3.9%
2020년	12,235,070	96,516	12,331,586	-30.7%
2021년	13,064,649	64,767	13,129,416	6.5%
2022년	19,410,363	26,420	19,436,783	48.0%
2023년	17,424,210	158,823	17,583,033	-9.5%

해짐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대략 8만여명 인구의 도시에 250배에 달하는 2천여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면, 그 도시는 단연 관광도시로서 성격을 분명히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한다면 일본의 대표적 관광도시로서 명성을 갖고 있는 일본의 고도(古都)인 교토의 경우 146만여 등록인구의 34배에 달하는 2019년 5천여만명의 관광객으로 유명하다(주오사가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9). 국제적 관광도시인 교토에 비해서도 인구 규모면에서 속초의 관광객 수는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속초는 역사적으로도 관광도시였던가? 언제부터 속초는 관광도시가 되었는가?

또한 지정학적으로 속초는 대한민국에서 동북부 휴전선 최근접 도시이다. 그와 함께 속초는 휴전선 직하의 실향월남민 도시로도 유명하다. 2016년부터 6월에는 실향민문화축제가 개최되면서 2024년에는 제8회를 맞이하였다.³⁾ 한국전쟁 이후, 특히 1963년 시 승격 이후의 속초의 모습이 현재 속초의 정체성으로 어필되어 있다.

그렇다면 속초는 언제부터 실향민 공간이 되었는가? 분단과 전쟁을 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때 속초는 강원도 양양군의 고읍이었고, 해방과 분단으로 북한 통치지역이 되었다고 1951년 여름 이후 속초는 양양군



<그림1> 2024실향민문화축제 포스터
출처: 속초문화관광재단(2024)

3) 2016년 당시에는 '제1회 전국이북실향민문화축제'로 불렸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하이브리드형 축제를 개최하여 실향민 1,2세대를 넘어 3,4세대로의 전파기에 실향민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한 목표로 개최되고 있으며, 속초가 '평화통일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속초문화관광재단, 2024)

과 함께 ‘수복지구’로서의 과도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후 1954년 10월부터 대한민국으로 행정권이 이양되어 1963년 속초시로 승격이 되면서 양양군과는 행정적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1960, 70년대에는 한국의 ‘명태’, ‘오징어’ 하면 속초를 말할 만큼 속초는 동북부 최대어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관동팔경(關東八景) 또는 영동팔경(嶺東八景)의 대표적인 관광지의 하나로 설악산을 포함한 속초시에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들이 계속 만들지고 있다. 최근 기후문제와 미세먼지문제 등을 포함한 환경문제가 악화되면서 속초는 청정지역으로 인식되어 개발 투자 및 투기 붐 문제로 시달리기도 했다(박수혁, 2021).

이제 일제강점기 이래로 속초의 현대사를 시대별로 일별하면서 변화되는 속초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길에서 기록의 필요성을 포함한 기록 분야와 방식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속초의 현대사를 찾아서

1) 속초는 강원도의 고도(古都) 양양군과 함께 한다.

속초는 시 승격 이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양양군의 일개 지역으로서 긴 역사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선사시대에는 유적을 근거로 하여 양양군 일대는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고, 조양동에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어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청동기시대의 유물은 꽤 큰 규모로 조양동 유적에 제법 큰 규모로 많은 종류의 토기 등이 발견되었고, 속초장사동 지역에도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었다(속초시, 2013: 161-163). 속초·양양지역의 고대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영향권에 있었다고 전한다. 신라 진흥왕조때 이 지역은 신라에 점령지로 되어 통일을 맞이했다. 그러한 역사는 속초8경 중 2경인 ‘범바위’가 있는 영랑호로 만나게 된다(속초시, 2024). 영랑호의 명칭은 신라 화랑 영랑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속초시, 1991: 1243). 또한 속초를 대표하는 산인 설악산 국립공원은 한국에서 다섯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1965년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2년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되었는데, 외설악지역이 속초 관할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고찰로 신흥사가 꼽히는데, 그 기원은 신라시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흥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라 진덕여왕 6년인 652년전 향성사로 시작되었다가 698년 화재로 폐허가 되었다. 통일신라 초기인

701년, 해동 화엄을 정립한 의상조사⁴⁾가 증진하여 ‘선정사’로 개칭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선정사는 임진왜란 등의 전란을 겪고, 병자호란 후인 1642년 완전히 소실되었다. 선정사 터 아래에 1644년 신흥사가 착공하여, 대웅전에 이어 1651년 명부전도 조성했다. 1798년에는 지장보살도와 시왕도를 조성했다고 한다(김미경, 2023). 보제루에 소장된 편역 가운데 조선 왕조 기일 편역(영조 50년, 1774년 제작)이 발견되어 신흥사가 왕실 기제사를 지냈음을 짐작케 했다(김경미, 2019: 8). 지장보살도와 시왕도는 망자의 죽음 이후를 관장하는 지장사상을 담고 있다. 이는 속초·양양 사람들에게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게 하고, 3년상을 지내는 의례를 가지고 있으며, 살아남은 사람이 착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민중사상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악산이나 신흥사는 조선조에도 이름을 떨쳤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후 조선 후기 혁신적 학자로 명성을 날린 윤희가 동료들과 금강산을 비롯하여 동해 지역을 두루 답사하던 중 설악산 신흥사에 들러 남긴 기록에 신흥사의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된다.

동구 밖을 나와 설악산을 바라보며 15리 남짓 가서 신흥사(神興寺)에 들렀더니 중들이 견여[지체높은 손님 영접용 가마의 일종]를 가지고 동구 밖까지 환영을 나왔다. 그 절은 설악산 북쪽 기슭에 있는 절로 동쪽을 향해 앉아 있었는데 전각(殿閣)이나 현루(軒樓)가 역시 규모가 큰 사찰 중의 하나였고, 여기에서 바라다보이는 설악산과 천후산(天吼山)의 깎아지른 봉우리와 가파른 산세는 마치 풍악(楓岳)과 기결함을 겨루기라도 하는 듯했다. 여기에 있는 육행(六行)과 쌍언(雙彦)이라는 중은 다 얘기 상대가 될 만하여 서울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윤희, 1672).

윤희가 방문했던 당시 신흥사는 여러 전각이나 현루(軒樓, 보제루) 등을 갖춘 규모 큰 사찰로 알려져 있었고, 당대 선진 학자인 윤희와 이야기 상대가 될 만한 승려들도 있을 만큼 규모가 있는 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7세기 건봉사 말사였던 신흥사는 중앙의 지식인도 관심을 가질 만큼 의미있는 곳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도 설악산의 대표적인 고찰로 신흥사는 자리매김되어 있었다(동아일보 편집국, 1927; 조선일보 편집국, 1940).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제

4) 의상조사(625~702)는 원효와 함께 고대 한반도에 한국식 불교를 자리매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해동화엄’을 열었다는 의미에서 의상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정통의 법맥을 이어받은 덕이 높은 스님”을 뜻하는 ‘조사(祖師)’의 존칭을 붙였다. 676년 양양 낙산사는 의상조사가 유학에서 귀국한 직후에 세워진 것으로 유명하다(권탄준, 2009).

5회 산악탐승대회는 설악산을 주제로 하여 베이스캠프를 신흥사로 정하여 그곳에서 개회식과 폐막식을 했다. 일제강점기 이래로 한국전쟁이 휴전된 이후에도 설악산과 신흥사, 속초는 자연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1960년대 이래로 설악산은 전국 중등학생들의 수학여행의 명소 중 하나로 자리잡히게 되었다. 1970년 기사를 보면 “아직도 흰눈이 덮여 있는 설악산에는 서울중앙고교를 비롯, 각 대학 및 고교의 수학여행학생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 ‘야호’의 메아리가 계곡마다 울려 퍼지기도 했다”고 전한다(동아일보 편집국, 1970: 7).

전통시대로부터 속초지역의 역사는 청정 수려한 자연과 역사깊은 고찰과 같은 명승지가 있어서 지역민을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자연유산, 문화유산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유산은 속초만의 것이 아니라, 지리학적으로 양양군과 같이 공유되어온 것이며, 지역민들의 긍지이기도 하다.

2) 지정학적 속초의 위상 변화

지리학적으로 속초는 양양군이 품었던 지역으로 위치지어졌다. 가장 오랜 기록은 조선조 영조 36년 편찬된 『여지도서』의 ‘속초리’다. 속초리는 속초시내 중심부에 해당되는 지역이었고, 호(戶)수 86호, 남자 90명, 여자 182명의 300명도 안되는 작은 마을이었다(속초시, 1991: 1239, 1242).

일제 강점기 속초를 변모시키는 데 혁혁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박상희 읍장이 손꼽힌다. 박상희 읍장은 도문에 위치했던 쌍천서숙 출신이었다. 쌍천서숙은 유교 계통의 학교로 1913년 보수 유림의 일원이었던 이석범에 의해 세워졌다. 이석범과 함께 쌍천서숙 출신들인 도천면의 김영경 등과 같은 엘리트들은 1919년 3.1만세운동을 1919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쌍천서숙 졸업생들과 함께 이끌어 나갔다.

속초면이 생기기 전, 도천면의 경우 만세운동을 포함한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는 경찰 주재소가 있던 대포리였다. 1937년 속초면 사무소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이전했다. 박상희 읍장이 청초호를 항구로 개발하고 7번 국도를 만들게 되면서 속초리가 변창하기 시작하였다. 1942년 속초읍 승격 당시는 속초리는 4개 구로 분리되었다.

1955년 속초읍사무소가 작성한 『읍세일람』에 따르면 속초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종래 청대산을 중심하여 이남을 도천[道門⁵⁾의 오기임]면, 이북을 소천면이라 칭하고 단기 4241년 비로소 면장을 두었든바 일제의 강점 후 단기 4245[4246년 오기임, 서기 1913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양면을 병합하여 도천면이라 개칭하고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치(置)하였음.

단기 4273년[서기 1937년]에 이르러 속초리에 면소재지를 옮겨 속초면이라 개칭하게 되니 산각(山脚)이 바로 동해에 접해 항만의 혜택이 흠핍(欠乏)한 령동(嶺東)이라 속초항의 자연적 호조건과 더불어 장족의 발전을 보게되어 단기 4275년[서기 1942년] 드디어 읍으로 승격하였음.

단기 4278년[서기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38선으로 말미아마(원문 그대로) 적치하에 속초면이라 이르게 되었던바 국군 진주와 더불어 단기 4284년[서기 1951년] 8월 18일 군정이 실시됨에 다시 읍으로 개칭(……).(속초읍, 1955: 1)⁶⁾

즉 속초는 일제 시대에 비로소 속초면으로 되었다가 다시 속초읍으로 승격되어 속초리 외의 주변 지역을 속초읍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1945년 38선의 획정으로 양양군은 38선으로 분단되었으나, 속초는 완전히 북한 관할로 되었고, 속초는 면으로 변화되었다. 한국전쟁으로 1951년 8월 18일 수복된 이후 다시 속초읍으로 승격된 후 1955년 당시 다음과 같은 행정구역을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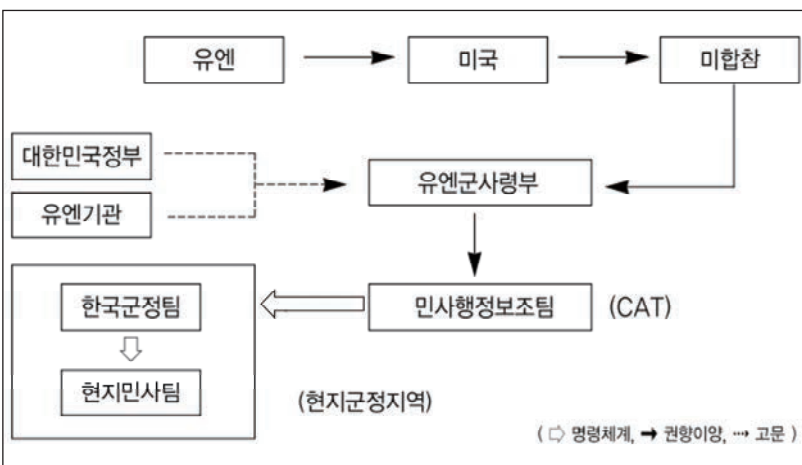
속초읍 : 속초리 1(현 영랑동), 2(현 동명동), 3(현 중앙동), 4(현 금호동), 5구(현재 청호동),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 부월리, 외옹치리, 대포리, 내물치리, 하도문리, 중도문리 1, 2구, 상도문리 1, 2구, 장항리 등 모두 16개리 22구로 구성되었다(속초읍, 1955: 13).

수복 당시 1952년경부터 월남피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행정명이 속초리5구(區)로 설정되기도 했다. 1926년 도천면 당시 인구는 5,783명이었는데, 1954년 군정시기에는 속초 인구가 20,599명(원주민 9,337명, 피난민 11,256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1962년이 되면 5만3천여명(조선일보 편집국, 1962)으로서, 7년이라는 단기간에 속초 인구는 2배 이상 늘게 되었다. 급기야 그러한 인구 규모를 바탕을 하여 1963년 양양군으로부터 분리되어 속초시로 승격되면서 면·리제가 동제로 바뀌게 되었다. 즉 동부 휴전선 직하 도

5) 이하 오기는 1926년 양양군 '도천면'이 작성한 『면세일반』을 참조함.

6) 원문을 살리기 위해 오늘날과 다르더라도 원문의 맞춤법대로 인용하였다.

1



```
graph TD; A[유엔] --> B[대한민국정부]; B --> C[유엔기관]; C --> D[한국군정팀]; D --> E[현지민사팀];
```


옥, 2000; Osbourne, 1952). 현실적으로 속초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이형근 사령관으로 대표되는 국군 제1군단의 군정을 체감하지만, 실제로 제1군단의 민사에 대한 총책임은 미8군이 보유하고, 속초양양에 대한 행정권은 1954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었다. 4년 정도의 기간, 군정은 미군과 국군 제1군단의 군사적 활동에 조력할 수 있는 민간인의 유입과 정착에 필요로 되는 경제적 문제로부터 문화적인 활동까지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속초 주민들(원주민과 월남피난민)에 대한 구호행정이 필요했다. 국군 제1군단 현지민사팀은 미군10군단 제8206부대 즉 ‘미군항만기지사령부’로부터 주민들에게 지급할 구호물자를 분배받아 일정한 양을 배급했다(김귀옥, 1999: 137). 현지 읍·면에서는 ‘요구호대상자’로 분류된 난민에게 구호물자를 분배하였는데 1952년 6월 이후 1953년 5월말까지 속초 전체 인구 3,661세대, 16,213명 가운데 2,204세대, 7,364명이 요구호대상자로 분류되었다. 그들은 모포나 의류, 식료품, 피혁, 일용품, 소금, 천막 및 농업용 도구를 지급받았고 구호양곡으로는 외미(外米=안남미)와 소맥, 대맥, 고량미, 수수 등을 배급받았다(강원도 양양군, 1954: 26-7). 그 외에도 어선용 전나무나, 주택용자재, 의류, 의약품, 학용품 등을 배급하기도 했다. 속초 사람들은 미군이 쓰다버린 각종 군수물자를 활용하여 집을 짓거나 어린이들은 놀이감을 만들기도 했다. 청호동 사람들은 배급되는 목재가 부족하여 미군이 버린 군용 목재나 드럼통, 박스 등으로 집을 짓기도 했다(김귀옥, 1999: 297).

또한 제8206부대 본부로 들어온 구호양곡은 국군 1군단 현지민사팀을 통

해 속초나 양양 지역별로 배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림3>에서 보듯 1953년 속초읍에서 이루어진 양곡배급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보인다.

속초지역에 피난민이 몰려오면서 배급되는 구호양곡 등으로는 생계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여, 민간인들은 갖가지 일을 했는데, 여성들은 미군 군복 빨래하기나 미군 민박하기 등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김귀옥, 1999). 2001년도에 면담한 최**(여)은



<그림3> 구호양곡 배급(1953, 속초읍), 출처: 양양문화원(2015: 19)



<그림4> 미군과 ‘슈샤인보이’, 출처: 폴 팬처 기증 사진



<그림5> 전기 통신선을 가설중인 군노무자, 출처: 폴 팬처 기증 사진

미군부대 앞에 거주하였다. 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방 한칸을 날림으로 가설하여 ‘양공주’딸린 미군을 민박시켰다고 증언했다.⁷⁾ 비공식적으로 생계를 잇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 구두땀기 소년의 등장이다. 폴 팬처 중위가 기증한 <그림4>에서 구두땀는 어린이들이 보인다. 현대적 관점에서 어린이 노동은 반인권적이지만, 전시 생계가 막막했던 시절 청소년의 구두땀기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다.

둘째, 미군은 속초지역에 사회간접시설을 배치했다. 미군이나 한국군이 이동하고 전방이나 서울 등과 교신하기 위해서는 도로 건설, 전기통신선 가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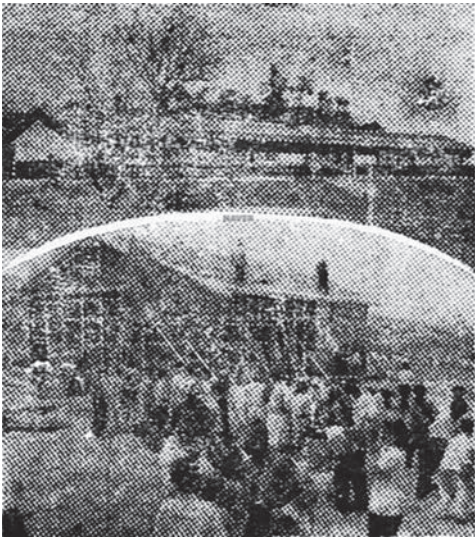


<그림6> 눈을 치우면서 이동하는 미군들, 출처: 디킨슨 기증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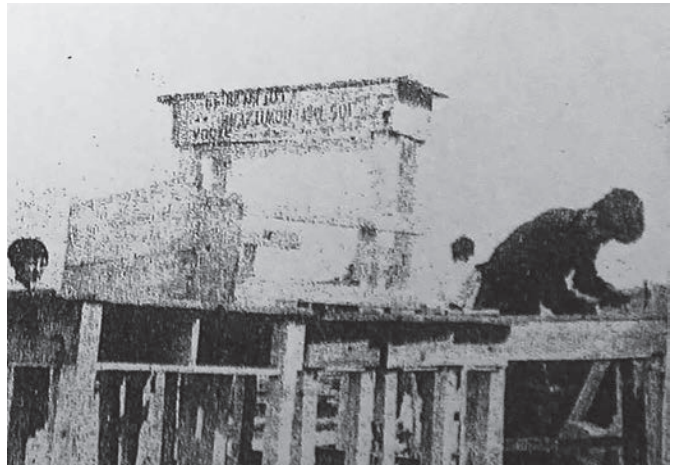
필수적이었는데, 구체적인 일은 주로 군노무자들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5>은 통신부대 소속이었던 폴 팬처 중위가 기증한 사진에서 전기 통신선을 가설하는 중인 군노무자를 볼 수 있다. <그림6>에서 보듯 여전히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산길에서는 이동 중에 눈이 오면 미군들이 직접 눈길을 치우곤 했다.

셋째, 미군의 지원으로 1951

7) 2001년 7월 4일, 최**의 자택, 최**의 인터뷰 중에서.



<그림7> 건축중인 속초고, 출처: 조선일보 편집국a(1954)



<그림8> 군수물자 활용해 책걸상 제작 중, 출처: 양양문화원(2015: 24)

년 10월 16일, 속초중학교가 설립된 데 이어 1952년 5월 25일에는 속초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⁸⁾ 1952년 9월초에는 미공보원이 기증한 교재 여섯 상자를 속초 각급학교에 기증하기도 했고, 같은 해 10월 26일경에는 유네스코 교육사절단이 속초에 내방하여 속초 양양 지역 교사들이나 교육 행정인사들을 만나 좌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교육 원조를 약속하기도 했다(속초시, 1991)고 한다. 미군이나 미국측에서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로는 교육 자체가 중요하기도 했지만, 북한 정권하에 교사를 했던 속초 주민 엄**의 인터뷰(김귀옥, 1997)를 통해 볼 때, 사회주의적 영향을 청산하고 미국식 또는 대한민국식 민주주의 교육에 영향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52년 5월 25일 속초고등학교가 설립되는 데에는 서창하 초대교장의 헌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엄경선, 2009: 178-182). 설립의 종자돈은 미8군으로부터 30만달러에 달하는 원조에서 나왔다(조선일보 편집국a, 1954). 물론 30만달러 모두 속초고 건축에 지원된 것은 아니었고, 양양고등학교 건축을 비롯하여 병원, 고아원, 공회당, 하수도 공사 등 10여종 사회간접시설 등에 투여(경향신문 편집국, 1954)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군은 속초 지역에 사회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했다. 우선은 전쟁 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해 고아원이 설립되었다. 또한 군인이나 민간인들의 치료를 위한 병원이 설립되는 데에도 미군의 기여가 있었다. 특히 1953년 12월

8) 속초국민학교는 1955년 2월 1일, 속초여자중학교는 같은 해 3월 29일, 영랑국민학교는 같은 해 11월 3일 설립되었다(속초시, 1991). 참고로 양양고등학교는 1953년 4월 5일 개교했다.

에 착공된 ‘속초구호병원’이 1954년 4월 30일 준공되었다. 이 병원은 “미군항만기지사령부(제8206부대) 사령관인 막아시(McCarthy) 중령의 열성”(조선일보 편집국b, 1954)으로 준공될 수 있었다고 한다.

다섯째, 미군정기에 기독교 교회나 성당이 생겼다. 속초 교구장 직무대리였던 헤이워드(Hubert Hayward) 신부는 당시 속초 읍장이었던 김근식에게 가톨릭 성당을 건립할 것으로 제안했고 김읍장은 동명동성당 부지를 제공하여, 1952년 10월 1일자로 속초성당이 설립되었고, 원 파트리치오 신부가 초대 주임신부로 임명되었다고 한다(동명동 성당 카페).



<그림9> 미군과 동명동 성당, 출처: 미군 레버렛의 기증사진

〈그림9〉에서 보듯, 1950년대 레버렛이 제8206부대 근무 중 방문한 동명동 성당의 담이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쟁의 비애를 시사하고 있다. 동명동성당 카페의 ‘설립 개요’에 따르면, 1951년 속초 거주 가톨릭 신자는 8가구 26명이었다. 추론컨대 이 성당이 26명의 한국 신도를 위한 교회로 출발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성당 건축의 중요한 유인력은 미군 가톨릭 신도를 통한 옥수수가루나 분유, 의약품 등과 같은 구호물자 유입의 장점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마침 1955년 동명동성당은 “미국교도들이 보내온” “분유 95톤을 고아원과 극빈자들에게 배부”했다고 한다(동아일보 편집국, 1955). 한편 속초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속초중앙교회’가 1952년 11월 9일, 16명이 신병삼 권사의 집에 모여 창립되었다고 한다.

또한 전시에 언론사도 생겼다. 국군 제1군단 중군신문인 『동해일보』가 1952년 4월 15일 창간되었다. ‘초대 사장은 김진익(당시 대포초등학교 교장)이었으나 2대 사장인 박태송이 취임하면서 ‘주식회사’로 바뀌게 되었다. 동해일보사에는 총무국장 박천복, 편집국장 남상갑, 기자 이경수, 윤상근, 엄명덕, 손건호, 박찬규, 나병하, 조대길 등이 활동했다. 『동해일보』는 타블로이드 판 양면(뒤에 4면 중면)으로 제작되었다. 창간호는 필사본이었으나 직후부터 등사판으로 제작, 보급되었다가, 1953년 6월 18일부터 활판 인쇄로 변경되

었다. 창간 당시 군으로부터 용지와 인쇄기 등의 자재 일부를 지원받았으나 차츰 자립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이종국, 2019: 76).



<그림10> 『동해일보』 (1952년 6월 25일자), 출처: 이종국 소장본

다시 말해 속초는 미8군의 동북부 중심 사령부 지역으로서, 또는 수복지구로서 다양한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표면적으로는 미국식 문화적 기능도 갖추어 가고 있었다.

4) 영고성쇠하는 동북부 최대 어항의 속초시

속초시 인구는 1963년 1월 1일 시 승격 이후 속초는 명태와 오징어 등으로 대표되는 어항으로 명성을 떨쳤다. 1970년에는 더 많은 어선이 정박하도록 속초항에 준설공사를 했다(매일경제신문 편집국, 1970). 심지어 1970년대 속초는 5백여척의 대소어선들이 올리는 어획량으로 세계적 오징어 다산지이자, 국내 최고의 명태포획량을 가진 동해 최대 어항임을 자랑했다(이봉섭, 1978). 1989년말에는 어선이 702척이 되었다(속초시, 1991: 573).

어항이 컸고 어선이 많았다는 것은 어업 인구도 늘었음을 의미한다. 1962년 속초의 전체 취업인구 중 32.1%가 어업인구였고 그 수치는 1968년경이 되면 41.4%로 올라가 6년 사이에 10%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1970년대

<표2> 연도별 속초 인구 변화 추세

(단위: 명)

연도별	시/동	가구수	인구	가구당 인구
1962		10,464	50,703	4.8
1967		12,785	67,079	5.2
1972		14,366	74,485	5.2
1977		14,819	72,771	4.9
1982		15,117	69,248	4.6
1987		17,888	71,913	4.0
1992		21,785	74,798	3.4
1997		28,452	85,221	3.0

출처: 속초시(1998: 109-110)

산업화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어업은 사양길에 접어들게 된다. 1970년대 중반까지 속초 및 청호동을 발전시켜온 원동력인 어업은 사양산업, 3D업종으로 취급받기에 이르렀고 1970년대 중반까지 유입되어 오던 어업인구는 1980년대 들어 다시 빠져나가는 추세를 보였고 어업인구의 빈곤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전경수, 1992: 4). 그럼에도 1980년대말 속초 전체 인구 중 수산업 종사 가구수는 2,877가구 10,343명(속초시, 1991: 573)인 반면, 농가수는 1,180가구, 4,511명(속초시, 1991: 503)으로 수산업 인구가 농가 인구의 두 배가 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속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관광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으로 관련 인구가 성장한 결과(속초시, 1991)로서 어업인구비율은 오히려 1995년 현재 28.6%로 낮아졌다.

그렇다면 속초는 원래 전통적으로 어업이 주업이었을까? 속초가 원래 어업이 발전했던 곳은 아니었다. 1920년대만 해도 속초는 반농반어지역이긴 해도 농업인구가 많았다. 1926년 도천면(1937년부터 속초면으로 개칭)사무소가 기록한 『면세일반(面勢一般)』에 따르면 속초에 사는 한국인 전체 인구 5,784명 가운데 농업인구가 3,941명(68.1%)이며 어업 및 관련 종사인구는 1,104명(19.1%)이었다.

일제가 한반도 병참기지정책을 수행하는 1930년대부터 속초의 산업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속초에 군수품으로 군납될 쇠고기 통조림공장⁹⁾이나 고등어나 꽂치 등 통조림공장이 설립되고 정어리 기름과 정어리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도 여러 개 생겨났다. 공장들은 대개 천혜 항만 조건을 갖춘 속초의 ‘청초호’

9) 쇠고기통조림공장의 규모는 상당히 커서 전국에서 소를 사들었다고 여러 사람이 증언한다(박익훈, 1996).

라는 자연 석호변에 설립(김정우, 1997: 38)되었다. 1936년에 속초 청호동으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박희수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의 청호동 지역에 해방 직전까지 5개의 수산공장, ‘주복이공장(청호동 1통 소재)’과 ‘오나까공장(1통)’, ‘허준네공장(6통, 정어리공장)’, ‘하마타(濱田)공장(7통, 정어리공장)’, ‘하야시까공장(10통, 정어리공장)과 금전수산(3통, 쫄치 건조장) 등이 있었다고 한다¹⁰⁾. 그러나 그 공장들은 대부분 해방 후 가동이 중지되었다(박익훈, 1996: 82).

한국전쟁 당시 속초 수복지구가 군정의 중심지로 된 것은 해상 북진 기지이자 군수물자 수송의 전진항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석호인 청초호가 일제 강점기 군수물자 수송 항만으로 건설되었던데 기인했다. 즉 평시라면 수복지역의 중심지도 양양읍이었었지만 전시 군부대들의 기동과 물자 수송이 수월한 조건으로 인해 속초가 군정의 중심지로 되었다.



<그림11> 8206부대와 LST선박, 출처: 속초시(2013: 139)



<그림12> 레버렛 중위 촬영의 LST선박, 출처: 레버렛 기증 사진, 보유: 속초시립박물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속초에는 미군이나 한국군 부대의 활동을 보좌할 인력이 필요했다. 고용형태는 첫째, 한국노무단, 둘째, 미군의 선발에 따라 미군에 직접 고용된 ‘직속고용자’, 셋째, 미군 개인이 고용하는 ‘숙사 고용인’으로 나뉘었다(금보운, 2021: 291). 속초의 미군부대도 ‘군후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 많은 민간인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월남인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직속고용자로서 속초의 미10군단은 급작스럽게 네 군데 부대를 만들어 미군군수물자를 운반할 수 있도록 피난민이나 속초 주민을 고용했다. ‘상호운수주식회사’라는 미군의 용역하청회사가 그들을 고용하여 군수물자

10) 심층면접대상자 박희수의 증언.

를 하역 또는 운송을 담당하였다. 이 회사에는 평균 500~600명의 노무자가 고용되었다. 노무자의 7, 80%는 월남인이었다고 한다(엄**, 오유섭, 강중앙 등의 증언)(김귀옥, 2000).

그 결과 1955년 직업별 인구를 보면 속초 전체 인구 2만 3천 699명 가운데 농업인구가 4,901명(20.7%) 어업인구는 5,666명(23.9%)(속초읍, 1955: 14)으로 반농반어지역으로 되었다. 즉 1950년대 반농반어지역이었던 속초는 1960, 70년대 어업이 대세인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속초의 명태잡이는 전국 2위 어획고(경향신문 편집국, 1958)를 올렸고 속초의 명태 덕장과 오징어 덕장이 속초의 명물이 되었다.



<그림13> 속초 명태 덕장



<그림13> 속초 오징어 덕장, 촬영: 김귀옥(1996/10/24)

그러나 1980년대부터 명태나 노가리, 청어를 비롯한 기존의 여러 어종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1990년대가 되면서 오징어를 제외하고 어획량은 급감했다. 속초 동해 앞바다의 수온 변화 등의 원인으로 주요 어장이 북방의 대화태 어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1980년대 말에는 이미 속초 지역의 수산업은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김종화, 1988; 김종수, 1992). 그럼에도 지역민들은 명란이나 명태순대를 비롯한 수많은 명태음식에 이어 오징어물회나 오징어순대 등으로 지역먹거리를 만들어내며 어류를 기본으로 한 수많은 음식문화를 만들어 냈다(엄경선, 2018).

3. 속초 현대사 속 상처의 기억들

미군이나 한국군 제1군단(사령관 이형근 장군)은 속초를 포함한 수복지역

에 긍정적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점령지역’(occupied areas)으로 불렸던 속초·양양지역은 일차적으로 전시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었다. UN군, 즉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과 통치권을 갖되, 한국군 제1군단이 위임받아 일종의 민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민사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수복이전까지 북한 통치지역이었으므로 사회주의 ‘물’을 빼고, 북한 통치 협력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색출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역할은 군부대가 직접 하기도 했고, 반공으로 무장한 치안대, 대한청년단, 각종의 반공단체들이 그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사건이 속초, 양양, 고성 일대에서 적잖이 발생하였다. 그 중 하나의 예를 군정 시작되기 전에 속초 조양동에서 발견할 수 있다.

속초의 조양동에 포함되어 있는 □□리(里)는 과거 양양군 내 ‘작은 모스크바’로 유명하다. 그런 탓에 그곳에서는 국군에 의한 학살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 마을의 터주대감 ‘조양’(가명, 1927~2011, 남)을 10여년 가까이 만나는 가운데, 그는 조금씩 기억을 꺼내고 있다. 2007년 11월 만남에서는 나를 만나면 주기 위해 작성한 1950년대 마을 지도 마을 주민들의 세대주 이름과 태호 명단을 건네 주었다. <그림15>은 조양이 직접 그린 조양동 □□리 마을 모습이다.



<그림15> 1950년대 전후 속초 조양동 □□리(里) 모습, 출처: 조양의 기증품(기증일, 2007. 11. 10)

속초의 옛사람이라면 알만한 조양동의 하위마을에 ‘배다리’, ‘솔밭말’, ‘연개마을’, ‘반부둑’, ‘안말’, ‘방축골’과 같은 작은 동네이 있었다. 조양은 자신의 동

네를 양양읍의 OO리에 버금가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작은 모스크바’라 불렸고, 월북자도 많아, 빨갱이동네로 불렸다고 한다. 그의 기록 속의 97 세대 가운데 적어도 19 세대에서 월북 또는 인민군으로 징병되어 나갔다. 그 덕분에 1950년 12월 또는 1951년 1월경에는 □□리 솔밭에서 국군들에 의해 □□리와 인근 마을 주민 수십명이 집단학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김귀옥, 2009). 그 솔밭은 한 동안 ‘해골마을’로 통했다고 한다. 군정이 되면서도 옆 마을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학살, 개인적 처단 등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김귀옥, 2001).

뿐만 아니라 그 일대 대부분 주민들은 제1군단이 주둔하게 되자, 집과 땅을 몰수하듯 빼앗기고 산간지역이나 다른 동네로 떠나야 했다. 군부대뿐만 아니라, 군장교들은 민가를 한 채씩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그러한 일들은 조양동 □□리 뿐만 아니라 많은 동네에서 일어났다.

수년 간의 사실상의 ‘점령’ 분위기는 속초 지역민들에게는 공포심이 내재화되는 과정이었다. 원래 미국과 구 소련이 설정한 군사분계선으로서의 38선의 이북 지역이었던 속초로서는 주민의 이동을 ‘월북’은 설명하지 않음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으나, 표현한다면 ‘빨갱이’로 간주되는 냉전적 분위기에서 이산가족의 많은 사람들은 가족 이산을 신고하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으로 2만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을 때도 속초 이산가족, 특히 월북이산가족 중에는 신청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채 냉가슴 앓을 사람만 많았다.

심지어 전시성폭력 사건도 끊기지 않았다. 속초의 어느 마을에서는 처녀, 유부녀를 가리지 않고 미군이나 한국군들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한다. “어떤 처녀는 3번 이상 겁탈을 당하고는 결국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 여러 번 당한 처녀들이 많았다. 얼굴 고운 옥춘이는 당하는 게 무서워 거지처럼, ‘미친년’처럼 꾸미기도 했다. 동네 어른들은 군인들이 동네 처녀씨를 말린다고 했다”(김귀옥, 2001). 양양군의 어느 동네에서는 부역자 집안의 여성들을 모두 색출하여 한 집에 가둬두고, 성폭력과 고문을 반복한 사건도 있었다(김귀옥, 2021; 김영미, 2023).

나아가 한국군인들이나 미군들은 속초지역의 문화유산을 훼손하거나 도난하는 사건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설악산의 고찰인 신흥사이다. 1951년 8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38선이북 속초·양양군에 비상계엄령이 실시됨으로써 군부통치 속에서 민간인들의 기본권은 극도로 제한되면서 사람에 대한 전시 폭력과 함께 문화유산이 파괴 및 훼손, 또는 도난당하는 비극도 일어났다. 신흥사의 문화유산들이 가장 심하게 파괴되었던 것은 1951년 격렬한 설악산 전투가 있었던 겨울에 발생했다. 한국군 제11사단 제9연대 병사가 주둔한 신흥사에 도

착한 리영희(1929~2010, 한양대 교수) 중위는 사찰 곳곳에서 군인들이 지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았다. 그때 상황을 돌아보자.

연대 지휘부에 앞서 도착한 본부중대의 병사들이 몸을 녹이려고 절 안팎 여기 저기 활활 불을 피우고 있었다. (생략) 장작이나 나뭇가지인줄 알았던 불 속에서는 돌과 도끼 삽 같은 것으로 마구 빠개진 불경 목판더미가 타고 있지 않은가? 절 안에서 경판을 둘러매고 사천왕문을 분주히 드나드는 사병들, 돌을 높이 들어 내리치는 병사들의 모습이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불빛에 비쳐 마치 영화에서 본 옛 해적들의 그악스러운 노획물 처분장 같아 보였다. 경판은 조각이 나고, 연방 불 속에 던져 넣어졌다.

나는 연대 전방지휘관인 부연대장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하고, 귀중한 거례의 문화재가 회진되고 있으니 즉시 불을 끄고 모든 경판을 회수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했다. (생략) 신흥사라는 사찰의 문화사회적 가치를 아는 바 없었고, 신흥사의 경판이 무슨 경의 인각이며, 어느 시대에 제작된, 어떤 역사적 유래가 있는지 따위를 알 리가 없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까닭은 6·25전쟁에서 국군이 들어가는 곳마다 무차별적으로 파괴를 일삼는 것에 대한 젊은 장교의 정의감에서 였다. 군대의 많은 장병들에게는 38도선을 넘으면서 부터는 ‘점령지’라는 의식이 앞서서 모든 것이 파괴와 노획의 대상처럼 비치는 성싶었다(리영희, 1996).

리영희 교수의 글처럼 대한민국 정부에는 속초 등지를 ‘수복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장의 군인들은 ‘점령지’라는 인식과 함께 적진에 대한 초토화 인식도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군들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한국전쟁 참전기념물로 여기며 이동가능한 것을 밀반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1954년 신흥사를 방문했던 폴 팬처 중위와 락웰 중위의 사찰 방문 사진에서도 밀반출이 진행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흥사 명부전에 가해진 훼손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16〉의 폴 팬처 중위가 명부전 시왕도를 사진 찍었을 당시에 좌측 2폭 1조인 제10대왕도와 제8대왕도는 없어졌지만, 제6대왕, 제4대왕, 제2대왕, 제3대왕, 제5대왕, 제9대왕도는 있었다. 그런데 4개월 후 리처드 락웰 중위가 명부전을 방문했을 당시 〈그림17〉에서 보듯 제6대왕, 제4대왕, 제2대왕, 제3대왕, 제5대왕, 제9대왕도마저 사라졌다. 그 결과를 일렬로 나열하면 〈그림18〉과 같다.



<그림16> 1954년 5~6월경 명부전 모습,
촬영: 폴 팬처(1954년 5~6월)



<그림17> 1954년 10~11월경 명부전 모습,
촬영: 리처드 락웰(1954년 10~11월), 소장: 속초시립박물관

소재 미상	소재 미상				소재 미상			소재 미상	
제10대왕 전륜대왕 1,095일, 3년	제8대왕 평등대왕 100일	제6대왕 변성대왕 7주간	제4대왕 오관대왕 4주간	제2대왕 초강대왕 2주간	제1대왕 진광대왕 1주간	제3대왕 승제대왕 3주간	제5대왕 염리대왕 5주간	제7대왕 태산대왕 7주, 49재	제9대왕 도시대왕 365일, 1년
2쪽 1조 ← 향좌측					향우측 → 2쪽 1조				

<그림18> 신흥사 명부전 <시왕도> 수리전 6점 4쪽 1조 형식(1798년),
출처: 김미경(2023, 11) 재구성

한편 그들이 방문했던 시점이 1954년 봄(5~6월경)과 가을(10~11월초)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이 군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의 이양 문제를 미국측과 협의하면서 수복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1953년 8월 26일, 대한민국 국회에 12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당시였다. 1954년 11월 17일 법적으로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1955)되기 직전에 락웰 중위는 수색 정찰 중에 신흥사에 방문했다고 했다. 당시 민간인들의 설악산 출입통제 상황에서, 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눈치 빠른 미군 중에 전리품으로 반출하기 용이한 문화재로서 남아 있던 시왕도 걸개 벽화(탱화)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 리처드 락웰 중위조차도 신흥사 방문하여 그곳의 경관을 밀반출한 직후 11월 미국으로 귀환했다. 그리고 64년이 지난 2018년 1월, 락웰은 속초시립박물관에 속초 사진 279점과 함께 경판도 돌려주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2019년 3월 조계종 측과 안민석 국회의원이 락웰의 시애틀 자택

을 방문(와이티엔(YTN) 편집국, 2019)하여 그가 사망하기 전에 경관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신흥사에는 아직도 행불을 알기 어려운 문화유산들이 있고 일제 강점기까지 최대 고찰이라고 고성 건봉사나 양양 낙산사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고찰들이나 문화유산의 파괴와 손실을 복원하고, 밀반출된 문화유산을 환수받는 등과 같은 공동의 과제가 있다.

관점에 따라 문화유산은 사물에 불과하지만, 거기에는 수 백년, 때로는 천년 이상되는 지역민들의 헌신과 삶의 족적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민의 문화로서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의 망실은 전쟁 폭력의 연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

4. 속초의 역사, 기록되지 않으면 잊힌다

기록되지 않으면 잊힌다. 역사가 역사로 남을 수 있고, 전통이 현대 속에서 소환될 수 있는 것은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이 현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이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다. 과거의 사실과 정보, 기억, 경험은 끊임없이 현재로부터 소환되어 해석되고 재해석된다. 원본 그대로의 과거는 드물지만, 원본이 축적될수록 원본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가능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실마리의 역할이 되어 준다.

그러나 20세기 한국의 전체사는 중앙 중심의 역사였고, 지역사는 전체사 중 부차적·지엽적 위상에서 서술되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중앙의 문서기록이 아니라면 사료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고, 중앙의 역사를 전체사라고 간주되었다. 지역의 역사는 전체사 속에 통계학적 숫자로 남겨져 있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때로는 지역의 역사가 아예 빠져 있거나 때로는 있더라도 왜곡되기도 했다. 21세기가 되어서야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여 그 문제에 대한 성찰이 일기 시작했다.

21세기 전후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기록은 문서기록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한편으로는 공동(空洞)화되어 있는 기록의 보완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왜곡되거나 사장되어 있는 기록의 대체(代替)로서 ‘기억’이 기록의 재료로 인식되고 있다(김귀옥, 2008: 38). 그 대표적인 사실이 속초·양양 수복지구에 4년간 시행되었던 미군정의 역사이다. 지역민들의 기억 속에서 선연한 경험으로 남아 있었지만, 전체사에서는 전적으로 빠져 있었다. 1996년 박사학위논문 준비를 위해 6개월간 속초에 체류하며 연구를 진행한 글쓰이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고 입증되었다(김귀옥, 1999; 2000; 2023). 미군정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속초와 같은 수복지구의 성격, 속초가 양

양군을 벗어나 휴전선 직하 시로 승격된 배경, 월남실향민의 유입 이유와 조건, 농업 주도의 양양군에서 속초의 반농반어지역으로서의 특성이 1950년대 이래로 1970년대까지 어업 주도 지역으로의 성격 전환 등과 속초 현대사에서 일어난 많은 변화들이 일정 정도 설명되기 시작했다.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우선, 이산가족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속초는 이산가족의 기록을 수집, 관리함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월남실향민으로 대표되는 속초 지역의 특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월북 문제가 발생하여 생긴 월북이산가족도 이산가족임을 기억해야 한다(김귀옥, 2004). 속초·양양 지역민들의 이산에 대해서는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수복 이래로 속초의 성격이 계속 진화·발전하고 있다. 지역의 변화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지방정부차원의 기록이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제한적이므로 더 늦기 전에 개인 공무원 출신이나 지역사가들이 소장한 문서 자료나 경험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속초의 일제 중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바뀌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 변화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분단과 전쟁으로 기록 등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

또한 생활사 차원에서 실향민 포함 지역민들의 농경문화, 어업문화, 여가문화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실제 조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월남실향민의 경우, 원 고향의 문화만도 아닌, 속초지역의 문화만도 아닌 제3의 융합 문화로 빚어져 ‘속초 특유’의 문화가 창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엄경선이 조사했듯이 속초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수많은 식재료나 음식, 요리법조차도 문화자산이다(엄경선 2018). 앞으로도 그러한 변화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산가족 1세대들의 자연수명이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조사와 기록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회가 된다면 수복지구 4년간의 미군정 시기 군인이나 군속으로 속초에 주둔했던 국내외 사람들의 조사나 기록 수집도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전쟁기 속초 통신부대의 폴 팬처(Paul B. Fancher, 1926년생) 중위, 신흥사의 불경판을 밀반출했던 리차드 락웰(R. B. Rockwell, 1928~2019) 미 해병대 중위, 찰스 레버렛(C. Leverett, 1953~54년 속초 복무), 바이런 디킨슨(B. Dickinson, 1942년생; 『설악신문』, 2015/07/06), 더글라스 프라이스(D. Price) 등과 같은 군인들이 속초를 경유했다. 그들은 사진과 같은 기록으로 당시 속초의 중요한 기록을 제공해줬다. 리영희 교수의 속초 신흥사에 대한 증언 역시 신흥사 파괴와 관련한 중요한 역사 증언이 되었다. 비록 그 연령대가 자연수명이 다하고 있으나, 여전히 탐문하여 기록을 남길 가치가 있다.

그럼 이러한 기록 자료를 누가 기획 및 수집·관리할 것인가? 현재는 그러한

주체가 없다. 현재 속초시 관할 기록물보존실과 속초시자료관이 있다. 속초시자료관은 ‘속초시 기록관 운영 규칙’(2007년 제정) 제2조 1항에서 정의내려져 있듯이, “속초시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소장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일반적 행정 시스템의 일부로 되어 있다.

속초의 역사 및 문화유산을 제대로 기획 및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칭)‘속초 아카이브즈(Archives)’ 또는 속초 라키비움(Larchiveum)¹¹⁾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가칭)‘속초 아카이브즈’는 이 지역의 이산가족 문제를 망라할 수 있는 기록을 수집하고, 기억을 구술하며, 관리하는 시스템과 전시관을 갖출 수 있다. 전시관은 현재의 속초 시립 박물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산가족관련 기억과 기록, 사진이나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심지어 월남실향민과 함께 월북실향민과 그 가족 관계의 DNA, 혈액을 포함한 생물학적 자료를 포함한 각종 자료나 기록을 수집 및 관리하는 것은 향후 화해·협력시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에도 소중한 자료로 역할할 것이다.

또한 속초 아카이브즈는 실향민 1세대의 자연사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는 유·무형의 각종 정보,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속초에는 속초에 가야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문화가 있다. 또한 한 때는 낙후의 상징이었던 청호동과 갯배는 이미 오래전부터 월남실향민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는 자산이 되어 있다. 또한 속초의 농촌동의 천 년 이상의 농경문화, 고찰의 기록도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다. 그러한 역사를 만든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의 역사를 함께 기록하여 문화유산으로 공유할 가치를 갖고 있다.

그간 (가칭) 속초 아카이브즈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속초시립박물관이 있다. 속초시와 지역 관계자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 2005년 11월 4일, 속초시립박물관이 탄생되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메인테마로 실향민문화촌을 열었고, 수많은 학생, 관광객들이 참관하는 곳으로 태어났다. 또한 발해역사관을 설치하여 고대사 유물을 전시해왔다. 또한 실향민의 생활사 전시나 속초 주둔 미군의 기증물품 전시회도 개최했다. 그리고 지역 어린이들의 문화체험 행사를 비롯한 문화강좌와 문화학교를 개최하여 문화센터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박물관은 이 글에서 말하는 속초의 역사나 지역민들의 기억과 생활 경험이나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 관리하

11)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 아카이브즈(Archives), 박물관(Museum)을 총칭하는 말로서 이 세 가지의 역할, 심지어 공연장과 어린이, 청소년 체험관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19> 속초시립박물관과 2020년 특별전 “전쟁이 멈춘 뒤, 속초”(사진 전시 포스터),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홈페이지 (<https://www.sokcho.go.kr/ct/museum>)

는 아카이브즈(Archives)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리고 속초가 갖는 영 북 지역의 중심성을 생각하면, ‘속초 아카이브즈’ 또는 ‘속초 라키비움’은 속초가 영북지역의 중심이자 양양군과 고성군과는 상호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고려한다면, 속초만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양양군이나 고성군과도 협조하여 ‘속초·영북 아카이브즈’로 명명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속초 아카이브즈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부 또는 외국의 관광객을 위한 문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러한 역사적·문화적 자산이야말로 지역민들의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이겨낸 원천이자 자긍심의 결정물이다. 지역민들의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 줄 수 있을 때 당대의 기억과 기록은 지역민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5. 맺음말

속초는 분단의 상징적 도시이다. 강원도 양양군의 부속지역이었던 속초는 전 시 휴전선 이남의 동해북부지역 군사기지가 되었다. 급작스럽게 미군이나 한국 군부대가 물리면서 군부대 조력을 위한 인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고향에 한 발자욱이라도 빨리 가고자 했던 월남피난민이 속초로 물리면서 인구가 급증했다. 그 결과 1963년 1월 1일, 속초는 시로 승격하게 되었다. 과거 반농반어 지역이었으나, 1950~70년대에는 동북부 최대의 수산업기지이자, 전국적으로 부산 다음으로 어획량이 높은 속이 바로 속초여서 속초에는 농업과 수산업의 물

산이 만나면서 식문화를 비롯하여 노동문화가 만나는 곳이 되었다. 또한 1990년대 관광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청정한 자연환경과 실향민의 융합적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연간 2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속초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양양군과의 연관을 끊기는 쉽지 않다. 영북 지역 안에서 무한 경쟁만으로는 서로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창원·마산·진해의 통합도시인 창원특례시와 같은 상생도시 비전을 가지게 된다면 속초는 현 영북지방의 도시로부터 장차 한반도 평화의 허브이자, 남북동서문화가 만나는 공간으로 커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속초의 미래 비전을 담은 기억과 기록의 공간으로서 가칭 ‘속초 아카이브’, 또는 ‘속초 라키비움’은 속초의 현재를 풍요롭게 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보고로 키워나갈 수 있는 원천으로 역할할 것으로 내다본다.

참고문헌

-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대정15년(1926년) 『面勢一斑』. 양양군청.(속초시 교동 고 박익훈 소장자료)
- 강원도 양양군 속초읍, 『邑勢一覽』, 속초읍사무소, 1955(속초시 조양동 고 박영식 소장자료).
- 강원도 양양군, 『수북년감』, 양양군청, 1954.
- 경향신문 편집국, 「부흥되는 양양지구: 학교·병원 등 각종문화시설 재건, 미8군서 공사비 30만불 제공」, 『경향신문』, 1954/01/28.
- 경향신문 편집국, 「자금난에 허덕이는 어촌」, 『경향신문』, 1958/04/29.
-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4년사』, 국방부, 1955.
- 권원근, 「속초 관광객 수 코로나19 이전 수준 뛰어 넘었다」 《강원일보》, 2023/02/05.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020507395651167>, 검색일: 2024/12/10).
- 권탄준, 「해동화엄의 실천적 전개」, 『불교연구』 30, 2009.
- 금보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자 동원과 정책의 균열 (1954~1966년)」, 『한국사연구』 195, 한국사연구회, 2021.
- 김경미, 「한문문화재 속초 신흥사 석가여래회도의 화맥 연구」, 『불교학부』 93, 2020.
- 김귀옥, 「구술사 연구 현황과 구술사 아카이브의 구축 사례」, 《기록IN》 가을호(9월 30일), 국가기록원, 2008.
- 김귀옥, 「속초 세 할머니가 겪은 6·25 전쟁」, 《민족21》 9월호, 2001.
- 김귀옥, 「속초시 발전 과정과 미군부대 주둔의 상관관계와 의미」, 『가까운 옛날, 60년 전 속초속으로』, 속초시·속초시립박물관, 2023.
- 김귀옥, 「엄**구술」(엄** 자택), 1997/08/07.
- 김귀옥,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경제와사회』 46호, 비판사회학회, 2000.
- 김귀옥, 「지역의 한국전쟁 경험과 지역사회의 변화: 강화도 교동 섬 주민의 한국전쟁 기억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71호, 2006.
- 김귀옥, 「최용회 구술」(최용회 자택), 2021/07/07.
- 김귀옥, 「한국전쟁과 이산가족: 지역에서의 이산가족의 기억과 고통」, 『동아시아의 전쟁과 사회』, 한울, 2009.
- 김귀옥, 『이산가족, ‘빨갱이’도 ‘반공전사’도 아닌: 이산가족을 보는 새로운 시각』, 역사비평사, 2004.
- 김귀옥, 1999.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밀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미경, 「속초 신흥사 명부전 시왕도 고찰」, 『국외소재문화재 신흥사 시왕도 한수축진 학술세미나』, 2023.
- 김영미, 「수북지역 사람들의 경험세계와 트라우마- 강원도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북한학) 국제학술대회』, 경북대학교, 2023.
- 김정우, 1997. 『내고향』. 강원일보사.
- 김종수, 「“고기없다” 동해안 깊은 시름」, 『한겨레신문』, 1988/03/08.
- 김종화, 「동해안 명태 안몰려 어민 “울상”」, 『한겨레신문』, 1988/09/04.
- 동아일보 편집국, 「순회탐방(426) 산명수려하고 지미가 비옥<4>」, 『동아일보』, 1927/09/06.

- 동아일보 편집국, 『동아일보 편집국』, 1970/04/27.
-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속초 등 3개어항 준설」, 『매일경제』, 1970/08/05.
- 박수혁, 「“강남보다 속초” “서울시 속초구” ... 개발 광풍 속 위기의 ‘영랑호’」, 《한겨레신문》, 2021/06/06.
- 박익훈, 『낙수집』, 강원일보사, 1996.
- 속초문화관광재단, 「실향민문화축제란」 《실향민문화축제》, 2024 (<http://sokchofestival.or.kr/dpcf/intro/festival> 검색일: 2024/12/10)
- 속초시, 「관광객 현황」 《속초스마트데이터》, 2024 (<https://www.sokcho.go.kr/sc/smart/indicator>, 검색일: 2024/12/10).
- 속초시, 「속초8경」, 《속초》 (<https://www.sokcho.go.kr/ct/tour/visual/eightview>, 검색일: 2024/12/12).
- 속초시, 『속초시지』, 속초시청, 1991.
- 속초시, 『속초연감 1996·1997』, 속초시청, 1998.
- 속초시, 『시정50년사』, 속초시청, 2013.
- 양양문화원, 『한국전쟁시기 양양군의 군정 통치에 대한 고찰』, 양양문화원, 2015.
- 엄경선, 『설악의 근현대 인물사』, 마음살림, 2009.
- 엄경선, 『시간여행 속초음식생활사』, 속초문화원·강원도문화원연합회, 2018.
- 와이티엔(YTN) 편집국, 「리영희 선생이 구한 경판, 90대 미군의 '양심'으로 돌아오다」, 『YTN』, 2019/03/26.
- 윤희, 「풍악록」, 『백호전서』 34, 1672. (출처: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380B_0350_010_0010 검색일 2024/07/19).
- 이봉섭, 「강산만리(23): 속초」, 『경향신문』, 1978/10/12.
- 이종국, 『남해 안춘근의 생애와 학문』, 글로벌콘텐츠, 2019.
- 전경수, 1992. 『한국어촌의 저발전과 적응』, 집문당.
- 조선일보 편집국, 「미8군서 30만불을 원조: 재건되어가는 동해안」, 『조선일보』, 1954/01/29.
- 조선일보 편집국, 「설악탐험의 초장: 본사주최 설악산탐험대 특신」, 『조선일보』, 1940/08/07.
- 조선일보 편집국, 「시승격을 건의」, 『조선일보』, 1962/08/30.
- 조선일보 편집국, 「속초구호병원완성」, 『조선일보』, 1954/05/13.
-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9년 교토시 관광통계」 《관할지역 주요 통계》, (https://overseas.mofa.go.kr/jp-osaka-ko/brd/m_803/list.do, 검색일: 2024/12/10).



예담 이희숙 작 • 중앙부두길 51 • Watercolor on paper



김은경 작 • 청학동 골목 • Watercolor on paper



임옥경 作 • 속초 대포항 • Watercolor on paper



인정 이희숙 作 • 속초항 • Watercolor on paper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원혜택

1. 향토사안내서, 속초문화지 등 속초문화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자들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발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DVD, 도서, 음반,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회비 : 연 5만원

문의 : TEL 632-1231 / FAX 632-1241 / 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번영로 155(영랑동)
Tel. 033 632 1231, 639 2439 Fax. 033 632 1241
www.sokcho-culture.com

비매품/무료

